

The·K



Monthly Magazine
April 2018
Vol. 08

CONTENTS

2018 APRIL VOL.08



4

여는 글

우리는 서로에게
참 좋은 짝

6

Essay

매화초옥도를 그리다
이동현 충남 서산중 교사

8

Inside Out

With Coffee
커피 한잔할까요?

10

Special Interview

보이지 않는 심리 이면의 진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16

Interview

낮선 시선과의 흥미로운 조우, 책 읽는 교실에서
송승훈 경기 남양주 광동고 교사

20

아름다운 동행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우정은 처음과 같이 영원히
배안자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행정 공무원 외 4인

26

먼 나라 교육 편지

다 괜찮아요, 여긴 말레이시아잖아요
이준언 국립국제교육원 파견 교사

30

트렌드 Go Go

주객전도된 소비 트렌드,
왁더독을 말하다

32

행복 만들기

토요일 아침, 축구로 여는 우정의 시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축구동호회

36

네오필리아

개인의 취향을 공유하는 공간,
동네 작은 책방

38

브랜뉴 여행

지구의 중심, 그 속에 숨은 낙원을 가다
에콰도르 - 키토와 갈라파고스제도

44

아는 공간

천재 시인 이상의 유일한 흔적
'이상의 집'에서 그의 숨결을 느끼다



46
문화 캘린더
 이달의 공연, 전시

48
재테크 팩토리
 금융·경제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50
The-K Focus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립 47주년
 여의도 새 공제회관 'The-K 타워' 개관

56
The-K Family
 남도의 봄 축제와 함께하는
 The-K지리산가족호텔

60
The-K News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출자회사 소식

62
독자 이벤트
 The-K 매거진 앱 다운로드 이벤트
 4월 즉석 당첨 이벤트

The·K

VOL.08

웹진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The-K 매거진>은 웹진과 모바일 앱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ww.thekmagazine.co.kr

발행인 문용린
발행처 한국교직원공제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50
www.ktcu.or.kr
발행일 2018년 4월 1일

편집
기자 정수희 jsh@swadcom.co.kr
객원 기자 이경희 이유선 정은주 정라희
교열 박혜경

디자인
아트 디렉터 서희지 seo@swadcom.co.kr
디자이너 김진이 kj2@swadcom.co.kr

사진
포토그래퍼 한상무 장병국 황원 이성원
사진 자문 유병용 디지털사진연구소 사티

법률 자문 김병철(문장종합법률사무소)
애플리케이션 제작 (주)아이원기술
제작 인쇄 (주)성우에드컴 02-890-0900

<The-K 매거진>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발간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The-K 매거진>의 공식적인 견해
 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The-K 매거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사전 동의, 허락 없이 무단 도용할 수 없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콜센터 1577-3400
보험콜센터 1577-3993



우리는 서로에게
참 좋은 짝

학창 시절 짝꿍을 바꾸던 시간을 기억하나요?

과연 누가 내 짝이 될까 설레기도 했던 그 순간을요.

처음 짝꿍이 되면 서먹함에 도리어 책상 위에 연필로 글을 그으며 다투기도 했죠.

하지만 다툼도 잠시, 둘도 없는 사이가 되어 서로의 비밀도 주고받던 그때.

“우리는 최고의 단짝이야.”

이 한마디에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와 뿌리처럼 서로 없으면 안 될 존재로

당신 곁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나무가 되어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뿌리가 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당신이라는 나무를 위해 보이지 않는 뿌리가 되어

단단한 힘을 보태겠다고.

당신의 나무가 꽃을 피워 춤추는 나비, 벌과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사나운 비바람을 맞아 가지가 떨어져도

더욱 뿌리를 아래로 내려 당신의 나무가 쓰러지지 않도록.

오래된 단짝처럼 변함없이 항상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다는 것을.

매화 초옥도를 그리다

봄이 바람 사이사이로 꽃들을 탁란하고 있다. 자운영이며 봄까치꽃, 광대나물꽃, 만주바람꽃, 고깔제비꽃이 풀잎 끝에서, 생강나무꽃이며 산수유꽃, 조팝나무꽃이 가지 끝에서 부화하는 소리가 들린다. 발독으로 줄지어 서 있는 매화, 나는 매화나무에 하얀 그리움을 수없이 탁란한다.

그래서일까. 살다 보면 가끔은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가 있다. 부슬부슬 내리는 봄비에 낙숫물이 지며 방울꽃을 피우는 모양을 보고 있노라면 빗물을 적셔 마루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 청보리밭 앞에 서서 풀 파도가 가슴을 쓸어가는 순간이면 더욱 그렇다. 그냥 그런 마음을 안고 산다.

십수 년 전이다. 그림 그리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지인의 화실에 놀러 간 적이 있다. 거기서 지인은 여벌로 그린 그림 한 점을 보여주었다. 어머니 홀로 살고 계시는 시골집에 걸어들 것이라는 말과 함께. 그 그림은 봄날 온통 하얀 매화꽃에 파묻힌 한가한 집과 그 집에 앉아 있는 한 사람을 그린 것으로, 한가한 집은 고향 집이고 그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홀로 계신 어머니라 했다. 그는 그 그림을 고향 집 대청에 걸어두고 어머니가 늘 보실 수 있게 할 심산이라고 말했다.

‘아, 매화꽃 더미에 파묻힌 어머니라니.’

순간 어머니의 환한 미소가 파문처럼 내 가슴에 번져왔다.

‘매화초옥도.’

그것은 조선 후기 문인 화가 사이에서 유행한 그림이 아닌가. 자연을 이상향으로 삼아 벼슬을 뒤로한 채 초옥을 짓고 매화를 심어놓고 은거한 중국 송대의 화가 임포를 동경하여 그렸다는. 그 매화초옥의 주인으로 임포 혹은 고고한 선비의 자리에 당당히 어머니를 그려 넣은 그림을 나는 마음 깊이 새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면서 지인은 자신의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곁들였다. 문맥상 어머니의 삶에 대한 보통의 연민이거나 나이 들어 어머니에 대한 빗진 마음을 불러내어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었다. 오히려 어머니에게서 배워야 할 삶의 자세가 많다고 했다. 동안거에 들어간 고승의 발걸음이 어머니 인생에 함께한다고 했다. 통장에 들어 있는 200만원으로도 세상 다 가진 부자라고 걱정 없어 하신다고 했다.

부자의 개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머니의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분명 무언가를 생각하게 한다며, 부자는 마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최종 귀착점도 마음이 아니겠느냐며,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사람이 많은 세대에 가난의 기준을 돈이 아닌 삶의 자세로 치환하며 사시는 진정한 삶의 주인공이 아니겠느냐며 지인은 부끄러운 듯 웃어 보였다.

지인의 고향 집은 지척에 작은 개울을 끼고 있다는 사실은 먼저 들어 알고 있었다. 그 개울엔 여전히 가재와 버들치와 디슬기가 있어 여름이면 발을 담그고 버들치와 함께 노닌다는 것도. 그런 풍경 속에서 보리밭에 쏟아지는 노고 지리 소리 같은 어머니의 안분지족하는 삶과 그런 어머니를 매화가 피는 자연 속에 기거하는 거사로 인정하는 아들의 사는 법이 자못 부럽기도 하거니와 시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짐작 가능할 것이다. 하여 나도 우리 어머니께 그런 매화초옥도를 하나 그려 드리고 싶었다.

지인의 화실을 나오며 나는 붓 한 자루를 훔쳐 왔다. 초옥 주변으로 매화꽃이 만개하고 그 안에서 아무 걱정 없이 아들을 기다리는 어머니를 그럴 붓 한 자루를. 다만 그 붓은 원래부터 지인의 화실에 있던 것이 아니기에 들고 나온 흔적도 없고, 그래서 어쩌면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이리라. 소리 없이 마음에 담아온 붓을 그가 알고 있는지는 모를 일이지만.

나는 그날 이후 십수 년에 걸쳐 매화초옥도를 천천히 그려가고 있다. 내가 그리는 매화초옥도는 어머니가 사시던 고향 집 둘레에 매화나무를 심는 일이다. 한 번에 그리지 않고 해마다 봄이면 조금씩 그려가는 그림이다.

기억하건대 어머니는 내가 어려서도, 커서도 늘 특별한 말씀이 없으신 분이였다. 항상 어머니의 자리가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셨다. 어머니와 나는 살아가는 데 있어 믿음으로 모든 걸 목계하는 사이였다.

어머니는 매화 꽃잎을 덮고 누우신 지 십수 년이지만, 올해도 매화꽃이 피어나는 초옥도에 매화나무 몇 그루를 더 심을 계획이다. 매화가 만발한 초옥에서 봄을 읽고 계신 어머니를 푸른 도포를 입고 찾아가는 그림을 이어서 그럴 계획이다.

오래전 지인의 화실에서 슬쩍 가슴에 품어 온 붓 한 자루. 그 붓 한 자루가 해마다 고향 집 둘레에 매화나무를 심어 어머니가 계신 매화초옥도를 그려가는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동현 충남 서산중 교사

국어를 가르친다. 두 해에 걸쳐 자유학기 활동으로 디카시 반을 운영, 작품집을 발간하는 등 시와 수업의 접목을 통해 학생들의 삶에 맑은 시를 심는 노력을 하고 있다. 흠빛문학회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현재 공주대 대학원에서 교원 특별 과정으로 석사과정 파견 연구 중이다.



With Coffee

커피 한잔할까요?

회원들에게 있어 커피 한잔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과 느긋하게 즐기는 커피 타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커피는 우리에게 맛과 향뿐 아니라 풍성한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커피는 이제 음료를 넘어 문화가 됐습니다.
 회원들이 생각하는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봅니다.

기간 2018년 3월 2일 ~ 5일
방법 e-mail을 통한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설문조사
대상 전국 공제회원 2162명

성별	남성	34.6%
	여성	65.4%
연령	20대	9.0%
	30대	33.7%
	40대	27.9%
	50대	20.5%
	60대 이상	9.0%
직업	교원	63.4%
	비교원	36.6%
	유치원	2.5%
근무하는 직장	초등학교	28.4%
	중학교	12.9%
	고등학교	14.0%
	대학교·병원	32.2%
	교육연수·행정·연구기관	7.6%
	기타	2.3%

(단위: %)

Q. 커피 또는 커피 문화를 떠올리면 생각나는 지역(도시·국가 등)은 어디입니까? (주관식)



에티오피아
14.7



브라질
12.9



이탈리아
11.6



강릉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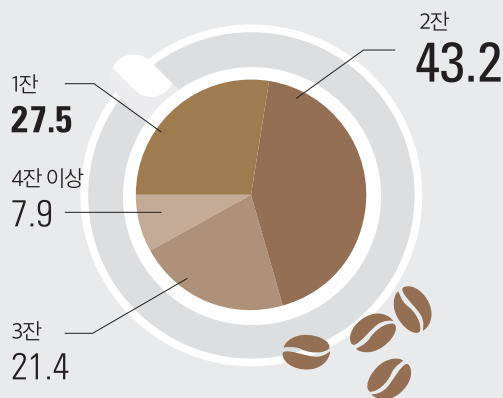
콜롬비아
8.3



미국
8.0

기타 베트남 5.8, 케냐 4.8, 시애틀 3.5, 아프리카 2.5

Q. 하루 평균 몇 잔의 커피를 마십니까?



Q. 평소 커피를 즐겨 마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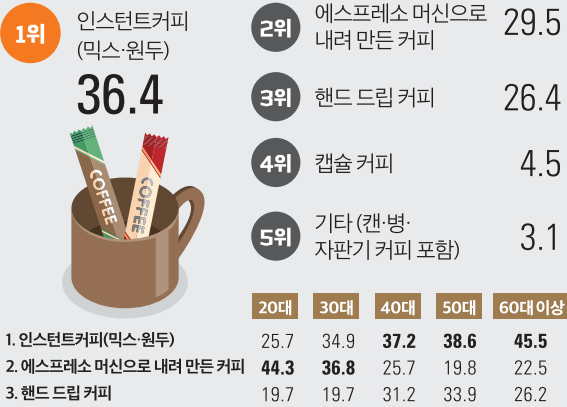
Q. 커피를 마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위 커피 맛과 향이 좋아서 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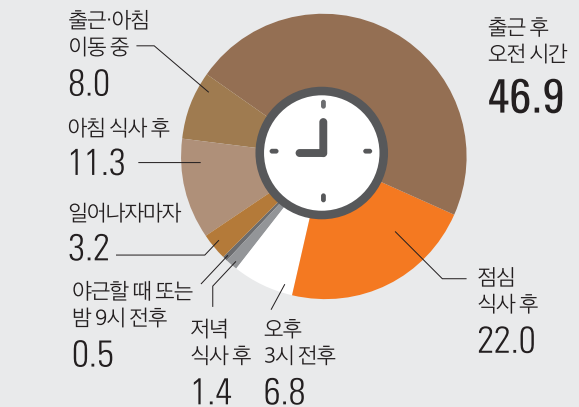
습관적으로	18.6
식후 디저트/입가심으로	11.6
졸음이 오거나 피곤해서	10.6
업무나 공부 등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10.1
미팅·회의 등 상대방과 얘기할 때 필요해서	3.3
입이 심심해서	1.8
기타	0.8
식사 대응으로	0.3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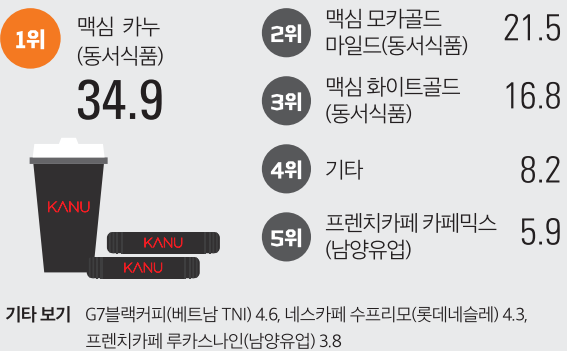
Q. 주로 어떤 종류의 커피를 마시니까?



Q. 커피를 마시는 시간대는 주로 언제입니까?



Q. 인스턴트커피(믹스·원두)를 마실 때 주로 이용하는 브랜드는 무엇입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1. 맥심 카누(동서식품)	43.2	35.3	34.6	36.7	21.9
2. 맥심 모카골드 마일드(동서식품)	13.7	21.0	21.6	22.6	28.3
3. 맥심 화이트골드(동서식품)	21.3	20.7	15.8	12.0	1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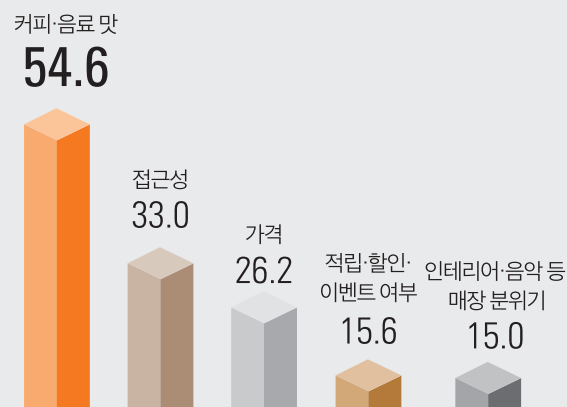
Q. 커피 전문점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십니까?



Q. 주로 이용하는 커피 전문점 브랜드는 어디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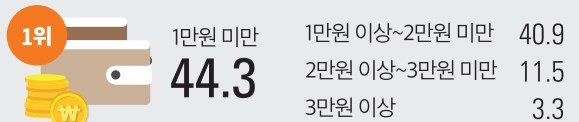


Q. 커피 전문점을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선택)



기타 보기 브랜드 이미지·인지도 12.7, 편의성 8.2, 직원 서비스 3.0, 사이드 메뉴·기타 1.0

Q. 커피 전문점 이용을 위해 일주일 평균 쓰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Q. 커피 전문점에서 선호하는 음료 메뉴는 무엇입니까?



기타 보기 카푸치노 4.0, 캐러멜 마키아토 3.6, 에스프레소 1.5, 기타 1.4

보이지 않는 심리 이면의 진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이수정 교수는 국내 1세대 범죄심리학자다. '범죄'라는 두 글자가 주는 무게 때문일까. 미디어에서 접하는 그녀의 이름은 주로 심각한 범죄 이슈 사이에서 발견할 때가 많다. 절대 가볍지 않은 수많은 질문과 의문에 답변해 온 이력은 더 나은 사회를 희망하는 그녀의 관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을 때 찾고 싶은 사람

SBS 시사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애청자라면 이수정 교수의 이름은 물론 얼굴도 익히 알 것이다. 사회문제와 미제 사건 등 다양한 분야를 취재 탐사하는 저널리즘 프로그램의 자문역. 이 때문에 TV 화면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시종일관 심각하고 진지하다. 그녀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문을 한 지 어느덧 18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는 옛말에 빗대면, 강산이 두 번 가까이 변할 법한 시간을 이 프로그램과 함께했다. 그녀의 이름 옆에 '그알(<그것이 알고 싶다>의 준말)'이 마치 호(號)처럼 따라붙을 정도다. 진행자가 아님에도 그녀가 이 프로그램의 상징적 존재로 자리매김한 데에는 사안을 이해하는 데 핵심 조언을 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처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부터 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그도 그럴 것이 다루는 주제는 물론 접하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이었기 때문이다. 각 사안에 대한 문제 제기를 통해 대중은 숨겨지거나 잊힌 사건의 진실을 대면하고 있다. 상당 부분 제작진의 노고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그 과정에서 이수정 교수의 자문이 프로그램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일조한다는 점만큼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자문함으로써 그녀가 얻은 것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명성이고, 다른 하나는 불편함이다. 언론에 얼굴을 비추는 만큼 이름이 알려지리라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로 유명해질 줄은 몰랐다. 길에서도 알아보는 사람들이 때문에 예전처럼 편한 옷을 입고 집 밖을 나서기 망설여지는 날도 늘었다. 그럼에도 그녀가 언론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일 자체가 연구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



LEE



SUE JUNG



“많은 사람이 살인범은
반인륜적 치안범일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살인 죄명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만큼 연구할 내용이 많아
이것만 해도 평생 할 일이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죄명 뒤에 감춰진 범죄 실상에 관한 연구 열정

그녀가 범죄심리학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은 1999년 경기대학교에 부임하면서부터다. 경기대학교는 국내 대학으로는 드물게 교정학과가 있는 곳. 심리 측정을 전공한 그녀가 맡은 첫 번째 과제는 범죄자 분류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대상자를 만나지 않고 데이터만으로 재소자를 유형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범죄심리학자로서 범죄자의 심리를 모른 채 연구를 할 수는 없었다. 범죄자의 심리 평가를 위해 교도소에 방문 신청을 했지만 번번이 돌아오는 회신은 ‘거절’이었다.

“그때만 해도 교도관도 변호사도 아닌 민간 연구자가 재소자를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여성 연구자인 것도 핸디캡이었죠. 그래서 연구 초반 제가 만날 수 있는 재소자는 대개 여성이었습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난 여성 재소자들은 오랜 기간 가정폭력의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당시 배우자 살해는 가중 처벌 요인이었다. 가부장적 가치 체계가 강하던 시절이라 남편을 살해한 여성은 더욱 엄벌하고 있었다. 엄밀히 말해 가정폭력 피해자였음에도, 이러한 맥락은 전혀 감경 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재소자를 직접 만나면서, 그녀는 판결문에 적시한 범행 동기 외에도 살펴야 할 요인이 많다는 것을 깊이 체감했다. 이는 그녀가 범죄심리학 연구에 더욱 몰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살인범은 반인륜적 치안범일 거라 생각하지만, 막상 살인 죄명을 받은 사람들을 만나보면 천차만별이에요. 그만큼 연구할 내용이 많아 이것만 해도 평생 할 일이 많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의무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녀는 특정 범죄자에 관심을 두기보다 심리학적 특성이 어떻게 하면 형사 사법 절차에 이바지할 수 있을지에 무게를 두는 연구자다. 이를 위해 선배 연구자들을 비롯해 여러 전문가와 손잡고 사법제도 내에서 활동할 가능성을 계속해서 모색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2008년 형사재판전문심리위원 제도 도입으로 이어졌다. 얼마 전 발생한 인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서도 양형 절차 중 많은 전문가가 활동했다. 그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한 사회의 법률가들이 공유하는 양형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

이수정 교수는 범죄심리학의 목표는 재범률을 낮추고 평범한 시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역할 역시 국민 개개인의 안전 확보에 있다. 현재 혼인율과 출생률이 낮아지는 배경에는 개별 구성원이 느끼는 불안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 범죄자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데, 우리나라는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공개하지 않죠. 외국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요. 하지만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공개합



이수정 교수의 보물 1호인 USB. 그 안에는 그동안 쌓아온 연구 결과가 담겨 있다.



니다. 사안의 무게중심이 피해자에 있는 거죠.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국가세금으로 어떻게 행정을 운영하는지 설명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국가구성원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감을 높이는 한 가지 방안은 제도 개선에 있다. 법과 제도 없이 공무원 개인의 소신만으로는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 일례로 전자발찌 도입 이후 성범죄 재범률은 6분의 1로 줄었다. 이전에는 범죄자들이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방출되면 추적할 방법이 없었다. 전자발찌가 재범을 100% 억제하지는 못하지만, 현재 이 만큼의 실효를 내는 제도는 드물다.

재범을 예방하는 교육의 힘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수정 교수는 “학생이 말썽을 부렸다고 학교 밖으로 내보내는 상황은 지양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학교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황이 학교 밖에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 여중생 집단폭

행 사건 역시 부모의 방기와 학업 중단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비행 청소년은 학교가 아니더라도 어떤 장소에서든 24시간을 보낸다. 위험한 공간에 여과 없이 노출하는 것보다 어떻게든 사회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것이 반드시 제도권 교육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적 담벼락은 높기만 하다.

“교육기관이 다양해지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를 교원이 감당하는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려면 더 많은 인적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에서 배출되는데, 배타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죠. 인적자원이 풍부해지면 교원의 직무 범위가 줄어들고, 더불어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강력 범죄를 자주 접하는 데다 제도 한계로 좌절할 경험이 많지만, 그래도 그녀는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다름 아닌 ‘사람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결국 ‘관계에 대한 믿음’이다. 무너진 마음을 회복하려면 다른 이와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소년원에서 독립한 아이들이 재범하는 이유는 사회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이미 해체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신기한 것은 제과제빵반 아이들은 재범을 거의 안 한다는 거예요. 취업률이 높기도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빵은 오븐에서 1분만 늦게 꺼내도 새카맣게 타버리고, 1분만 빨리 꺼내도 설익는다고 해요. 그런 노하우를 선생님과의 신뢰 관계를 통해 배우는 거죠.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빵을 망치니까요. 또 빵을 구워 공동생활 하는 아이들에게 나누어주면서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아요. 낮은 자존감과 상처 입은 마음이 빵 냄새와 함께 회복되는 과정이 있죠.”

이러한 사례를 통해 그녀는 관계의 힘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 그리고 이는 학교 현장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리라 믿는다. 누군가의 모델이 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 그렇기에 비행 청소년들에게 교직은 매우 중요하고 앞으로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앞으로도 그녀는 우리 사회와 공동체의 건강성이 향상되기를 바라면서 범죄심리학 연구에 집중하고, 사회의 변화를 위해 대외 활동을 이어갈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가 사는 사회가 조금이나마 개선되기를 바라는 열망에 기반을 두고 있다. 진정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닐까. 아직, 이수정 교수가 할 일은 너무도 많이 남아 있다.



“교육기관이 다양해지면 문제가 있어 보이는 아이를
교원이 감당하는 부담이 줄어들겠죠. 그러려면 더 많은
인적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다른 분야에서 배출되는데,
배타적인 시스템 안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도움을 주기 어렵죠.
인적자원이 풍부해지면 교원의 직무 범위가 줄어들고,
더불어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년을 거슬러 올라, 독서 교육의 개인적 역사를 풀어내는 목소리가 한없이 울린다. 이어지는 일상의 에피소드에 대한 단어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금세 리듬이 실린다. 심오하지만 어쩐지 술술 넘어가는 책장처럼, 송승훈 교사와 대화가 유연하게 이어진다.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무수한 지식과 철학과 유머가 오간 시간이었다.



SEUNG HUN

낮선 시선과의 흥미로운 조우, 책 읽는 교실에서

송승훈 | 경기 남양주 광동고 교사

교실에 번지는 독서의 즐거움

부드러운 조명이 비추는 이곳, 사방이 책으로 빼곡하다. 오랜 세월 읽은 티가 역력한 문고판 시집부터 따끈따끈한 인문학 서적까지, 시대와 장르를 불문하는 걸 보면 서재의 주인인 송승훈 교사는 책과 꽤나 인연이 깊은 게 분명하다. 집의 이름조차 '낡은 책이 있는 거친 돌집'이라는 뜻의 '잔서완석루(殘書頑石樓)'. 명확한 관심사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참고로 이 공간은 삶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그의 고민이 녹아 있는 곳으로, 집을 짓는 과정에서 이일훈 건축가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제가 살고 싶은 집은>이라는 책으로 엮어내기도 했다.

가만 보니 책장 한 칸에는 엽서도 한 장 놓여 있다. 1997년도 제자가 남긴 것이다. 국어 교과서를 벗어나 색다른 내용으로 공부한 것이 좋은 경험이었다는 내용. 송승훈 교사가 광동고에서 첫 교편을 잡은 그해의 이야기다.

“벌써 20년 전이에요. 당시 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국어가 주요 과목이 아닌 데다 교과서도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았다 보니 수업이 망가졌어요. 공부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은 견디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힘들 수밖에 없었니까요. 그래서 교사로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 인생에 도움이 될까’ 고민하다 시작한 게 독서 교육이에요. 책을 읽으면 훗날 어떤 직업을 갖든 분명 유용할 거라고 생각했죠.”

물론 처음부터 학생들이 독서 교육을 온전히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어떻게 지도하든 잘 따라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교사가 잘 이끌어야만 배우는 학생이 있는 법. 송승훈 교사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차츰차츰 자신만의 교육 방식을 만들어갔다. 먼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것부터 시작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과제로 익숙한 독후감이지만 제대로 쓰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가르쳤다. 책도 반 전체 학생에게 같은 것을 권하는 대신 각자 취향에 따라 골라 읽을 수 있도록 열다섯 권 정도를 선정해 제안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SONG



“한 반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뒤섞여 있다는 점을 고려했어요. 그래서 두세 살 많은 아이가 읽을 법한 책부터 두세 살 적은 아이가 읽을 법한 책까지 골고루 골랐죠. 그러자 대부분의 아이가 따라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수업을 다양화해나갔어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시간

책을 매개로 한 송승훈 교사의 수업은 매우 다채롭다. 학생들이 자신의 가치관을 반영해 서평을 하고, 인생의 한 장면과 관련한 시를 찾아 경험을 기록하며, 책을 읽은 후 그와 연계한 인물을 직접 섭외해 인터뷰 원고를 작성하는 식이다. 4명이 같은 책을 읽고 대화하는 방식으로도 수업을 진행한다. 각자의 세계관이 반영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의미가 생성되도록 돕는 것. 송승훈 교사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을 교환함으로써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눠야 하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소통 능력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물론 교사의 역할은 일반적인 국어 수업보다 몇 곱절로 늘어난다. 하지만 송승훈 교사는 기꺼이 감수할 만한 수고라고 생각한다. 그는 독서 교육으로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 아이들의 눈에서 지성의 빛이 감도는 모습을 보는 보람이 무척 크다고 말한다. 엄밀히 보면 이는 송 교사 역시 성장기에 같은 과정을 겪었기에 더욱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초등학교 때 집에 있던 책을 읽은 경험, 중학생 때 뜻도 모른

채 고전을 만난 기억, 고등학교 때 서평 책에 언급된 책을 섭렵한 일들은 그의 인생에 굵직하고도 분명한 전환점을 만들어주었으니까. 특히 고등학교 시절 탐독한 <전태일 평전>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거꾸로 읽는 세계사> 등은 세상과 삶에 대한 눈을 틔워준 시발점과 다름없다.

“세상의 많은 시원찮은 것은, 편해서 생기는 요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편한 게 좋긴 하지만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이를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분명 있죠. 글쓰기 교육도 그중 하나예요. 교사는 읽는 수고로움이, 학생 역시 요약 정리를 받아 적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써야 하는 피곤이 따를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겪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또 글쓰기는 다른 실기와 마찬가지로 잘 배워야 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르치면 어떤 아이라도 잘 해내죠. 다만 각각 소화하는 능력이 다르므로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옆에서 고쳐줘야 해요. 그 과정이 결정적이죠.”

공유하고 나눌수록 힘이 실리는 교육

독서 교육은 교사에게도 중요하다. 다만, 다른 사람의 경험과 연구 등을 담아놓은 책만으로는 깊이 있는 이해가 불가능할 터. 9년 전, 송승훈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수업 방식을 공유하는 전국국어교사모임의 독서교육분과 ‘물꼬방’을 창단했다.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든 동료와 공부하는 건 기본이에요.

“세상의 많은 시원찮은 것은,
편하기 때문에 생기는 요소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편한 게 좋긴
하지만 조금의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이를 수 있는 귀한 것들이 분명 있죠.
글쓰기 교육도 그중 하나예요.
교사는 읽는 수고로움이, 학생 역시
요약 정리를 받아 적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써야 하는 피곤이
따를 거예요. 하지만 이 과정을
겪어야 성장할 수 있어요.”





현장의 모범이 이론으로 정립되기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사이에 문제가 계속 일어나죠. 그래서 누구든 자기 공간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의 경우를 다 배우진 못해요. 동료와 다양한 사례를 나누고 공부하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함께 공부하며 뚫고 나가야죠.”

특이한 점은 물꼬방이 ‘교사가 지치지 않는, 지속 가능한 독서 교육’이 목표라는 것. 여기서 ‘교사가 지치지 않는다’는 건 올해 한 수업을 내년에도, 그다음 해에도, 퇴직할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모형을 뜻한다. 많은 교사가 한 번씩은 훌륭한 교사였던 순간이 있지만 지나치게 헌신적으로 열정을 쏟아부은 나머지 한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까닭이다. 아무리 완성도가 뛰어나도 지속할 수 없다면, 남들이 함께 쓸 수 없는 방법이라면

지금의 교육을 바꾸기 어렵다는 게 송승훈 교사의 견해다.

“물꼬방을 시작한 지 8~9년쯤 됐어요. 물꼬방이 연결 고리가 되어 독서 교육이 현장으로 전파되고, 선생님들이 여러 곳에서 강의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요. 인생의 보람도 느끼고요.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교육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이 제대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도 있어요. 지금의 교육을 조금이나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죠. 저는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제 역할에 충실할 겁니다. 우리 사회에 정의롭지 않은 일들이 줄어들고, 학생들에게 양극화를 완화할 역량이 생겨나게 하는 것, 독서 교육을 통해 제 감냥만큼 그것에 기여하고 싶어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우정은 처음과 같이 영원히

오랜 친구들, 소녀로 돌아가다

날씨가 따스하다. 여수에 모인 친구들 사이에도 봄이 흠뻑 내려앉았다. 이 자리에 모인 이들 모두가 내년엔 정년퇴직이라니 믿기지 않는다. 아직도 소녀 같기만 한데 나뭇잎 굴러가는 것만 봐도 좋아하는 여학생처럼 눈만 마주치면 미소 짓고 누군가 한 마디를 툭 던지면 까르르 웃음보를 터뜨린다.

오늘 모인 사람들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교육행정 공무원으로 일하는 5명의 선생이다. 소속 학교는 제각각 다르지만 20년이 넘도록 한결같은 우정을 나누면서 주변의 부러움을 한껏 사고 있다.

“저희는 모두 내년 6월과 12월에 정년퇴직을 합니다. 같은 직종에 근무하는 교육행정 공무원이자 동갑내기 친구로서 오랜 세월을 함께해왔는데, 퇴직 전에 아주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어서 ‘아름다운 동행’에 신청을 했어요.”

친구들 몰래 사연을 보낸 배안자(일신초 행정실) 선생이 활짝 미소를 짓는다.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정말 몰랐다” “우리도 놀랐다”라며 왁자하게 이야기를 거든다.

배안자 선생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모인 친구들은 강승금(진만초 행정실)·안영희(문화중 행정실)·김공숙(중흥초 행정실)·송명자(무등초 행정실) 선생이다. 이 5명이 완전체로 만난 시기는 1994년. 그전에 개별적으로 알고 지낸 시기까지 합치면 무려 30년 가까이 우정을 쌓아온 엄청난 공력



배안자 선생을 모신 친구들 4인

괴테는 “공기와 빛과 친구의 우정, 이것만 남아 있으면 실망할 것이 없다”라고 했다. 우리네 삶에서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 말은 아마도 오늘 모인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교육행정 공무원 배안자 선생과 친구들에게 적용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내년 정년퇴직을 앞둔, 동갑내기 교육행정 공무원 5인의 깊고 진한 우정을 살짝 엿보자.





의 친구들이다. 이들 사이에는 서로 눈만 쳐다봐도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알토란 같은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온 것이다.

우리의 소원은 영원한 우정

오늘 모인 친구들이 여행지로 선택한 장소는 대한민국 하단에 자리 잡은 여수다. 송명자 선생이 운전대를 잡고 모두 용기종기 붙어앉아 소녀처럼 떠들썩하게 내려오는 길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들뜨고 설렘을 터. 여기에 포근한 날씨가 여행을 도울 채비를 마쳤다.

여수에 들러 돌계장을 안 먹고 가면 섭섭한 법. 모두가 망설임 없이 돌계장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전라도 음식점답게 먼저 밀반찬이 푸짐하게 깔렸다. 이어서 먹음직스러운 계장이 나오자 너나없이 작게 탄성을 질렀다. 살이 짙 찬 계장을 한입 베어 물자 간이 잘 밴 통통한 계살이 입안 가득 밀려들

고, 특유의 고소함에 일행은 잠시 황홀경에 빠졌다. 밥도둑임을 증명이라도 하듯 밥 한 공기를 푹 푹 비운 뒤, 계장의 하이라이트인 '계딱지 비빔밥'을 먹는 것도 잊지 않는다.

식사를 마친 뒤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타는 자산공원 탑승장 옆에 자리한 카페 '나무애그림'. 식사 후 따뜻한 커피와 차 한잔은 필수가 아닌가. 그러나 막상 도착한 나무애그림의 풍경은 일행에게 커피 생각을 모두 잊게 할 만큼 황홀했다. 눈앞에 광활한 여수 앞바다가 펼쳐진 것이다. 다섯 친구는 수학여행 온 학생처럼 비명 같은 감탄사를 연신 쏟아내며 사진을 찍느라 바빴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다. 이곳에서는 꼭 해야 할 이벤트가 하나 있다. 카페에 마련된 타원형 나무 펜던트에 각자 소원을 적은 뒤 카페 앞에 있는 나무와 난간에 매달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다. 이벤트에 동참한 일행은 모두 즐거운 표정을 감추지





색색의 펜을 잡고 진지하게 또박또박
‘우정’ ‘건강’ ‘행복’ 등의 단어가 포함된 소원을
서로 결눈질해가며 써 내려가는 일행의 모습이
마치 갈래머리 여학생처럼 보였다.



못했다. 색색의 펜을 잡고 진지하게 또박또박 ‘우정’ ‘건강’ ‘행복’ 등의 단어가 포함된 소원을 서로 결눈질해가며 써 내려가는 일행의 모습이 마치 갈래머리 여학생처럼 보였다.

여수 바다를 만끽하다

다섯 선생의 인연은 ‘교육’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서 시작되었다. 교육행정 공무원으로서 참가하는 연수,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서로 만났기 때문이다. 안영희 선생은 김공숙 선생을 처음 만난 때를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

“행정실 직원들이 모여 연말정산 회의를 하는 때였어요. 저는 그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전혀 몰랐죠. 그런데 그날 처음 본 공숙이가 정말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지금 만나는 멤버들이 다 동갑내기이다 보니 누구보다 쉽게 빨리 친해질 수 있었죠.”

안영희 선생의 회고에 김공숙 선생이 조금은 수줍게 웃었다. 평소 모임에서 엄마 같은 존재로 늘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나눠주는 등 심성이 푸근한 그를 향한 친구들의 애정이 그대로 느껴졌다.

이제 여수 해상 케이블카를 타볼 차례다. 평일이라 기다림 없이 바로 탑승한 케이블카는 아니나 다를까, 여수 바다 위를 지나가는 기분이 기가 막혔다. 하늘과 바다가 잇닿은 느낌, 저 멀리 보이는 거북선대교와 돌산대교, 배들이 느리게 오가는 선착장, 알록달록한 집들이 모여 있는 모습까지 말 그대로 한 폭의 풍경화와 다름없었다.

해상 케이블카에서 내려 함께 산책한 곳은 바로 옆에 자리 잡은 돌산공원이다. 돌산대교준공기념탑, 장군도, 거북선대교, 저 건너편의 여수 시내까지... 케이블카 안에서는 멀리 보이던 것들이 한 층 가깝게 다가오니 ‘이곳이 바로 여수구나’ 비로소 실감했다.

동백나무길을 거닐다가 갑자기 5명의 친구가 약속이나 한 듯 가방을 열어 부스럭거리며 무언가를 꺼냈다. 오늘 여행을 기념한 깜짝 이벤트! 서로에게 선물할 봄 스카프를, 이왕이면 봄소식을 알려

줄 동백나무 밑에서 주고받기로 한 것이다.

언제나 힘든 일을 자처하고 봉사하는 송명자, 늘 웃음을 선사하는 분위기 메이커 강승금, 얌전하지만 모임의 중심을 잡아주는 안영희, 푸근한 심성을 가진 김공숙, 모임의 막내이자 총무로 어떤 일이든 똑심 있게 해내는 배안자 선생. 스카프에 담긴 봄은 친구들의 어깨며 목에 곱게 둘러져 아름다운 향기를 풍겼다. 천만금을 쥐도 살 수 없는 이들의 수십 년 우정은 그토록 자태가 고왔다.

우정,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왔으니 아름다운 하멜등대는 꼭 보고 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하늘이 점차 분홍색으로 물들어가는 시간, 새빨간 하멜등대 앞에서 놀러 온 학생들과 번갈아가며 사진도 찍고 친구에게 선물 받은 스카프를 허공에 날려보며 신명 나게 여수 밤바다의 낭만을 즐기는 친구들. 이러한 모습에 가장 기뻐한 건 두말할 것 없이 오늘 여행을 추진한 배안자 선생이다.

“사실 깜짝 선물로 준비한 여행이라 사정이 있는 한두 명은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들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 참석해주고 즐겨주니 정말 고맙고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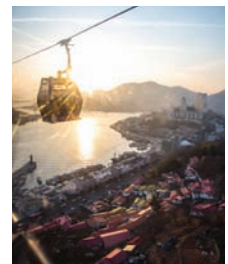
친구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얼굴에서 잔잔한 미소

가 길게 꼬리를 늘인다.

돌이켜보면 참 오랜 세월이었다. 모두 1959년생인 이들은 집안의 살림 밑천으로 젊어서는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돈을 벌어야 했고, 그러면서 배움에 대한 열망에 부족한 잠을 쫓아가며 방통대학이며 야간 대학을 다녔다. 결혼해서는 엄마이자 아내로서 자식과 남편을 챙기면서 살아야 했다. 그리고 정년퇴직을 앞둔 지금, 이제는 그 누구도 아닌 스스로를 챙겨야 하는 시기를 맞이한 것이다.

“돌아보면 우리 친구들은 미혼일 때 만나서 지금까지 기쁜 일, 슬픈 일, 힘든 일을 서로 의지하며 함께 걸어왔어요. 친구들 덕분에 2배, 3배의 행복을 맛봤고, 인생을 함께 사유하고 보듬으면서 우리 삶을 풍부하게 만들어온 것 같아요. 일로서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소중한 친구들을 얻은 것을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소도, 박장대소도, 풍기는 느낌도 비슷한 친구들이 모인 이 모임의 이름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에서 따온 ‘청.바.지’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튼튼하고 길진 바지로 사랑받은 청바지를 차려입은 이들, 지금까지 그래 왔듯 앞으로 그 어떤 험난한 시간이 닥쳐도 ‘우리는 하나’라는 우정 아래에서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 우리 삶에서 좋은 친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달은 오늘 하루가 세상에서 가장 값진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났다.



‘아름다운 동행’ 참가자 모집
 <The-K 매거진>에서 ‘아름다운 동행’에 함께할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가족, 친구, 제자 등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떠나고 싶다면, 아래 메일로 성함, 연락처, 참여 인원 및 관계와 참가 이유를 보내주세요.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도록 <The-K 매거진>이 함께합니다.

<The-K 매거진> 편집실
E-mail. jsh@swadcom.co.kr

친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여수 돌계장

여수 여행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돌계장. 돌계장은 벌떡계장의 전라도식 이름이다. 벌떡계장은 꽃게보다 작고 살은 없지만 맛이 담백해 주로 계장을 담가 먹는다. 여수에 간다면 잊지 말고 반드시 먹어볼 음식이다.

📍 **꽃돌계장1번가** 전남 여수시 봉산2로 36
 (061-644-0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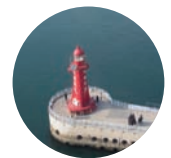


여수 해상 케이블카

바다 위를 지나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해상 케이블카다. 아시아에서는 네 번째로 만들어졌으며, 바닥이 투명한 크리스탈 캐빈과 일반 캐빈 총 50대를 운행 중이다. 여수 바다와 섬, 다리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으며, 특히 야경이 아름답다.

📍 **탑승 장소** 돌산공원 내 놀이정류장 또는 자산공원 내 해야정류장

🕒 **운행 시간** 평일·공휴일 일요일 오전 9시~ 오후 9시 30분 / 토요일 오전 9시~ 오후 10시 30분



하멜등대

여수구항에 만들어진 하멜수변공원의 방파제 끝에 있는 무인 등대다. 광양항과 여수항을 오가는 선박을 위한 시설로 <하멜표류기>를 쓴 네덜란드인 헨드릭 하멜(Hendrick Hamel)이 여수 지역에 머물렀던 것을 기리기 위하여 만들었다. 근처에 있는 하멜전시관도 가볼 만하다.

📍 전남 여수시 중화동 일대



오늘 하루 여행을 마치고

강승금 선생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준 안자에게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살면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서 이렇게 긴 인연을 이어왔다는 게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 여행 다니면서 지금 같은 행복을 느끼고 싶어요.

안영희 선생

친구 덕분에 좋은 기회를 얻어 여수까지 여행을 올 수 있었어요. 또 오늘 하루, 친구들과 함께 평생 찍을 사진을 다 찍은 것 같고요. 하하. 서로 마주 보고 웃는 시간들이 참 좋고 정겨웠습니다.

김공숙 선생

친구 덕분에 생각지도 못한 여수 여행을 즐겼습니다. 30년 동안 우정을 쌓아왔지만 오늘 여행을 계기로 더 깊은 우정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우정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지키고 싶습니다.

송명자 선생

맛있는 음식도 먹고, 좋은 풍경도 감상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앞으로도 늘처럼 우리 모두 웃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길 바라요. 모두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배안자 선생

우리는 만나면 늘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온 과거, 퇴직 후의 미래, 자녀들의 진로, 노후 생활까지 끝없이 화제가 이어지죠. 이렇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는 우정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지금까지 온 것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멋지게 사랑합시다!





다 괜찮아요, 여긴 말레이시아잖아요 **Okayla~ Boleh!**

말레이시아 공기에서는 사람 냄새가 납니다. 한국과는 차원이 다른 강한 태양빛을 먹고 하늘 높이 쭉쭉 자란 야자나무엔 노란 야자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가꾸는 사람 없이도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열대 나무 꽃은 흐드러지게 피고, 다소독되어 바짝 마른 대지엔 각자의 억양으로 변형된 영어와 생전 처음 듣는 나라 말이 쏟아집니다. 100여 년 전 식민 시대의 건물과 새로운 빌딩 숲이 조화롭게 마천루를 이룬 도시에는 세계 각지에서 이곳을 찾아온 사람들과 향이 강한 음식 냄새로 가득합니다. 건물도 사람도 꽃도 나무도 알록달록, 다채로운 말레이시아는 흑백사진으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2017년 1월 파견 온 후 1년이 후다닥 지나가버린 지금 좌충우돌, 허둥지둥하며 이곳에서 그래도 잘 버틸 수 있었던 건 아마도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마음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길 어느 곳에서나 눈이 마주치면 ‘어서 와요. 당신도 힐링이 필요해 이곳에 왔군요’라고 말을 거는 듯 느긋하고 평화로운 미소로 인사합니다.

“그래요. 그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한 번쯤 하죠. 괜찮아요. 여긴 말레이시아잖아요!”

“볼레, 볼레!(Boleh, Boleh!; 괜찮아요!)”

이렇게 말레이시아는 엄동설한 한국에서 열대의 여름 나라로 순간 이동한 제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히 아름답고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늘 평안하길
기도해요**

“앗살라무알라이쿰 단 살람 스자트라(Assalamualaikum Dan Salam Sejahte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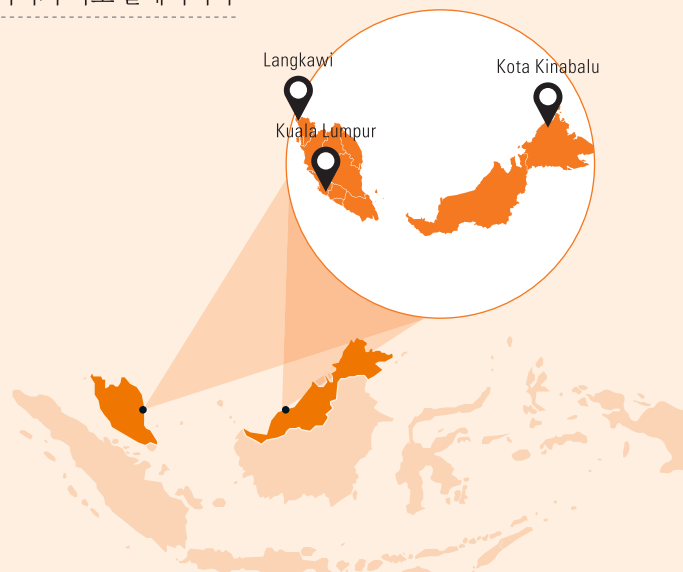
아랍어로 ‘당신에게 신의 자비와 평화가 있기를...’을 뜻하는 이 인사말은 우리의 ‘안녕하세요’와 비슷하게 사용됩니다. 아마 이곳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말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또 말레이시아의 독특한 인사 중 하나로 ‘살람(Salam)’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만나거나 헤어질 때 서로 손을 잡고 얼굴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세 번 비비며 안아주는데, 이를 ‘살람 인사’라 합니다. 이곳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을 꼽으라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싶은 것이 수업이 끝나면 우르르 몰려나와 학생들이 건네는 살람 인사입니다.



매일 32~33°C를 웃도는 날씨에도 냉방이 잘 되지 않는 교실에서 수업을 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살갑게 다가와 제 손에 입술이나 이마에 갖다 대며 “트리마 카시, 체구(Terima Kasih, Cikgu; 감사합니다, 선생님)”라고 말하며 미소 짓습니다. 순수하고 착한 소녀들의 얼굴에는 늘 따뜻한 위로와 감동이 있습니다. 낯선 외국인 교사에게 보여주는 이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랑에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느끼며 수업의 피로감을 잊습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가 주는 평안함의 가장 큰 이유는 다양한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며 터득한 이들만의 여유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요. 이 마음이 낯선 이방인에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는 만족감과 안도감을 주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별거 아닌 친절을 통해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나라, 말레이계·중국계·인도계 등 다양한 민족(2017년 기준 말레이계 53%, 중국계 24.5%, 토착민 11.8%, 인도계 9.8%, 기타 0.9%)이 서로 다른 종교와 풍습을 존중해 1년 내내 다양한 민족의 명절을 편견 없이 지키며 많은 축제를 즐기는 나라,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과 현지인이 섞여 음식 문화를 만들고 더불어 사는 다문화의 화모니를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나라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여성 리더가 될 거예요

제가 근무하는 Sekolah Menengah Sains Seri Puteri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국립과학여자중·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입학 자격 시험에서 높은 성적을 거둬야만 진학할 수 있어 학생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정통 무슬림 기숙학교로 학생들은 새벽 5시에 기상하여 기도로 하루를 엽니다. 정규 수업은 오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3시 30분에 끝납니다. 이후 자습과 보충수업, 스포츠 활동, 저녁 자습, 저녁 기도 등 학생들의 일정은 밤 11시가 되어야 마무리됩니다.

무슬림 학생들이기에 머리에는 투둥(Tudung)이라는 두건을 쓰고 팔다리를 모두 가리는 긴 바주쿠룽(Baju Kurung)을 교복으로 입습니다. 운동할 때나 행사가 있을 땐 기숙사별로 색이 다른 체육복을 입지만 머리에 쓴 투둥은 절대 벗지 않습니다. 처음 이 학교에 왔을 땐 투둥을 쓰고 긴 치마를 입고 교정을 사뿐사뿐 걸어 다니는 학생들을 보며 보수적이고 정적인 학교일 거라 생각했는데, 큰 오해였습니다. 학생들은 누구보다 자신만만하며 자유롭게 생각하고 창의적입니다.

학교의 모토인 'Creative, Innovative, Proactive'답게 여자 교장 선생님은 조회 때마다 여성이 못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매일 아침에 진행되는 조회에는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영어와 말레이어로 'Public Speaking'이라는 연설을 하는데, 당당하게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10대 소녀들을 보고 있으면 말레이시아의 밝은 미래가 떠오릅니다.

무슬림 사회는 여성의 인권이 약할 것이라는 제 짧은 생각은 말레이시아 사회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여전히 일부다처제가 남아 있지만 여성의 사회 진출이 보편화돼 있고, 공직과 기업의 주요 직책에 여성이 오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에게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족입니다. 무슬림 명절인 하리라야(Hariraya)가 되면 온 가족이 같은 색깔의 옷을 맞춰 입고 식사를 하거나 외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이들의 연대 의식은 가족, 직장, 종교 등 다양한 형태로 연결돼 있습니다.

금식이 시작되는 라마단 기간에는 해가 지는 시간을 기다리며 대가족이 함께 모여 담소를 나누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누는 무슬림의 교리가 이들의 가족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입시에 대한 부담은 한국이나 이곳 학생들이 다르지 않지만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서로 공부 방법을 공유하고 지식을 나누기를 좋아합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만큼 종교 교육과 도덕 교육이 교육과정 전반에 함께 자리하고 있어 교육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가
너무 좋아요**

말레이시아 학생들은 한국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정규 교육과정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한국어를 익히고, 드라마나 노래로 한국어 공부를 했다는데 그 실력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말레이시아 교육부는 2017년부터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한국어를 지정해 1·2학년에 정규 수업으로 개설되어 있으며, 제2외국어 중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한국어 반에 들지 못한 학생을 위한 방과 후 한국어 반도 학생들로 늘 넘쳐납니다. 한국어를 왜 좋아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먼저 돌아오는 대답은 BTS, EXO, SEVENTEEN 같은 아이돌 그룹이 좋다는 말이지만,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학생들은 한국과 진정한 사랑에 빠진 듯합니다.

언어 수업 외에도 가사실에서 김밥 만들기, 비빔밥 만들기 등 한국 요리를 배우고, 학교 행사 때는 한국 노래 합창 공연도 합니다. 이 외에도 태권도 동아리, 붓글씨 쓰기, K-Pop 배우기, 단소 배우기, 한국 영화 감상, 한복 체험, 전통 매듭 만들기 등 다양한 문화수업도 진행됩니다.

“선생님,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요!” “선생님! 한국에는 정말 눈이 오나요?”

더운 열대 나라 소녀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인 아이돌 오빠들의 나라이자 꼭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그로 인해 시작한 한국 학교와의 국제 교류를 통해 한국 친구를 사귀고 서로 손편지를 주고받으며, 각 나라의 문화를 구체적으로 느껴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국제 교류 활동으로 한국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학교 행사 때 한국어 반 학생들과 가수 유리상자의 노래 ‘아름다운 세상’을 공연했습니다.

“혼자선 이룰 수 없죠, 세상 무엇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학생들이 작은 입을 모아 예쁘게 부르는 이 노래를 들으며 갑자기 울컥해 감동받은 기억이 납니다. 봉사를 하러 왔지만 학생들을 통해 제가 배우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서로에 대한 아무런 편견 없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이 아름다운 세상인 반면, 그동안 저는 주어진 시간에 해야 할 일을 하느라 무엇이 중요한지 잊고 살아온 것 같습니다. 교사는 누군가의 기억 속에 원하던 원하지 않든 오랜 시간 기억됩니다.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기억 속에 한국어 선생님을 통해 배운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따뜻하고 아름다운 좋은 추억으로 기억되길 기도하며 편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연 국립국제교육원 파견 교사
한국에서 10년 남짓 일본어를 가르치다 2017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 파견 교사로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 소녀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객전도된 소비 트렌드, 웍더독을 말하다

(Wag the Dog)

연례행사가 된 17개의 스타벅스 스티커 모으기



12월이 되면 스타벅스 매장 앞에는 사람들의 줄이 끊이지 않는다. 다이어리를 받고자 평소보다 빈번히 스타벅스를 찾아 커피와 음료를 마시기 때문이다. 음료 한 잔당 e-스티커를 한 장씩 주는데, e-스티커 17개를 모으기까지 몇 개가 남았는지를 서로 묻고 답하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연례행사가 됐다. 특히 '카페인족'에게 말이다.

갑자기 카페인족 이야기를 꺼내니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말하는 '카페인'의 의미와 맥락은 커피와 딱히 상관이 없다. 주요 SNS 채널인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앞 글자를 딴 조어인 것. '카페인'에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손에 쥔 사람들의 인증샷이 하나둘 늘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다. 일개 다이어리가 우리의 연말 풍경을 좌지우지하니 놀라울 따름이다.

사실 스타벅스 다이어리와 품질, 디자인 등이 엇비슷한 제품은 일반 문구점에서 그리 비싸지 않은 가격에 쉽게 구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 잔도 아니고 무려 열일곱 잔이나 마신 것을 앱으로 '증명'까지 해야 받을 수 있는 이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금이나 은으로라도 만들었을까?

본 제품인 커피보다 한낱 사은품에 불과한 다이어리를 더욱 갈구하는 이 불가한 장면, 이는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소비사회의 웍더독(Wag the Dog) 현상이다. 사은품은 '덤'으로 주는 것인데, 덤에 더욱 심는 사람들은 기꺼이 지갑을 연다. 이 의아한 심리의 정체는 무엇일까.

게이미피케이션, 소비 심리와 게임 구조의 결합



스타벅스 e-스티커 17개를 모으는 과정은 롤플레이 게임의 서사와 닮아 있다. 중요 아이템을 하나하나 모아 미션을 통과하는 게임 구조와 말이다. 하나는 가상공간에서 전개되는 오락이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 이뤄지는 소비 활동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다이어리 획득은 게임으로 치면 하나의 미션이다. 미션을 '클리어'하기 위한 기간은 무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 두 달이 조금 넘는 기간에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의 핵심 아이템을 이용자끼리 매매하는 것처럼 스타벅스 e-스티커도 중고 사이트 카페에서 다양한 가격에 거래된다. 게임 속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일종의 '사냥'을 하는 게이머처럼 스티커를 다 모은 '스벅 덕후'는 점포별 재고 수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하며 원하는 색상의 다이어리를 찾아다닌다.

이 기막힌 스토리텔링의 구조적 유사성(相似性)이란! 스타벅스 다이어리의 인기는 게임의 작동 메커니즘을 소비 심리와 절묘하게 연결한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요소들이 조화롭게 맞물린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스타벅스 다이어리는 스티커를 모으는 번거로운 과정 없이 일정 금액을 주고 바로 구매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의 '호갱'을 자처하며 다국적 기업에 대한 '자발적 복종'을 유쾌하게 받아들이는 이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게 다이어리를 손쉽게 구매하는 것은 게임의 흥을 깨는 변칙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누가 이들의 게임을 방해한다는 말인가!



하비테인먼트 트렌드 속

‘어른이’들의 쑥스럽지 않은 득템!



취미 생활과 쇼핑, 레저의 결합을 일컫는 ‘하비테인먼트(Hobby+Entertainment)’. 어린이다운 감수성을 잃지 않은 ‘어른이(어른+어린이)’들이 최근 하비테인먼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이들은 탄탄한 소비력을 갖췄을뿐더러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콘텐츠를 소비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로 인해 어른이 고객은 시장에서 ‘큰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도 어른들의 장난감 소비를 철없는 행태로 바라보는 시선이 남아 있는 게 현실이다. 자식의 장난감을 사는 경우가 아니면 양복을 입은 청·장년이 장난감을 집어 드는 모습을 쉬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서가 잔존하기에 어른이들은 장난감이나 피겨를 살 때 받는 따까운 눈총에 약간의 불편함을 호소하곤 한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하지만 장난감 사은품 프로모션은 이런 어른이들의 불편함과 쑥스러움을 대거 해소해준다.

“A 물건을 사니 이걸 공짜로 주더라고” “B 상품을 사면 엄청 할인해줘서 재미 삼아 하나 가져왔어” 라고 말하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진다. 쑥스럽지 않게 ‘득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슈퍼마리오 피겨를 갖기 위해 맥도날드에 간 직장인 김 대리, 로봇트 태권 V 피겨를 손에 넣고자 롯데리아에서 평소에 잘 먹지도 않는 햄버거 세트를 주문한 이 과장. 이들의 심리 기저에는 겹연쩍지 않고 자연스러운 득템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장난감, 만화책, 게임, 프라모델, 인형, 피겨 등을 좋아하는 개개인의 취향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주위 사람 모두에게 자신의 소비 취향을 밝힐 이유는 없다. 은밀하게 취미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다. 사은품 소비를 통해 본인의 소비 활동에 자연스럽게 재미 요소가 더해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득템이라 할 수 있다.

공익사업과 연계한

‘덤 마케팅’의 출현을 고대하며



사은품을 활용한 프로모션 기법인 ‘덤 마케팅’은 고객에게 이색적인 재미와 또 다른 하나를 더 얻어간다는 만족감을 선사하는데 있어 기업에도, 고객에도 선호도가 높은 마케팅 기법이다. 그런데 이런 덤 마케팅도 이제 한 단계 진화한 모습을 보여 주면 어떨까 싶다.

눈에 보이는 상품을 하나 더 주거나 싸게 판매하는 것에 그치는 대신 어떤 물건을 할인함과 동시에 덤으로 자선단체의 후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주거나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선물하는 것이다. 이런 사례가 없지는 않으나 대기업들이 보다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 그렇게 된다면 덤 마케팅은 재미, 만족감 외에 ‘사회적 책임’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얻을 것이다.

공익이라는 이름의 꼬리라면, 몸통 좀 흔들어도 괜찮지 않은가? 감동을 ‘덤’으로 받는 마케팅이 더욱 다양해질 기대해보자.



토요일 아침, 축구로 여는 우정의 시간

“좋아서 하는 일을 누가 말려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축구동호회 50여 명의 회원은 그저 축구가 좋아서 그리고 사람이 좋아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이다. 평범한 일상, 축구를 통해 건강을 챙기고 서로의 우정을 돈독히 다진다. 22년 동안 한결같이 토요일 아침을 축구로 열어가던 동호회 회원들의 표정에는 ‘축구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맨 아래줄 왼쪽부터 이석희(인천예술고 주무관), 김중권(약산초 주무관), 고영훈(강화교육지원청 주무관), 김호선(북부교육지원청 학교운영지원과장), 김양희(인천여고 주무관), 신승철(남부교육지원청 체육교육팀장), 신현웅(인천시교육청 감사3팀장) 가운데 줄 왼쪽부터 서민수(인천소래초 주무관), 박희진(인천주안초 행정실장), 류기훈(인천공천초 행정실장), 최병환(가림고 주무관), 김종필(신흥여중 행정실장), 천선주(미추홀외고 주무관), 김태식(인천시교육청 주무관) 맨 윗줄 왼쪽부터 주현진(인천정보산업고 주무관), 송지윤(동부교육지원청 주무관), 오영택(인천시교육청 주무관), 김민희(북부교육지원청 주무관), 설승식(인천진산과학고 주무관), 한근혁(도립고 주무관), 윤기정(인천초은중 주무관), 권태우(인천해양과학고 주무관), 주준호(화도진도서관 주무관)

3대 2, 극적인 역전승

“추위도 더워도 우리는 모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상관없어요. 심지어 명절에도 모여서 공을 차거든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3월 2일 토요일, 인천 가정여중 운동장은 이른 아침부터 한바탕 떠들썩했다. 인천·부천 지역 학사장교 출신 축구동호회와의 한 판 승부를 위해 동호회 회원들의 현란한 몸놀림과 분주한 함성이 시작된 것. 1996년 창단 이래 20년 넘게 해온 시합이지만, 언제나 한결같은 토요일 아침의 풍경이다. 오랫동안 활동한 회원들의 표정에도 매너리즘은커녕 ‘밝음’뿐이었다. 회원 하나하나의 표정과 몸놀림은 설명이 필요 없는 최상의 컨디션 그 자체였다. 그저 축구가 좋아서 모이고 사람이 좋아서 모이기에, 토요일 이른 아침은 오히려 평일보다 더 개운하다고 말하는 그들의 눈빛은 아이처럼 신나 보였다.

이날의 게임은 3대 2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축구동호회의 승리로 끝났다. 경기 내내 팽팽하게 골을 주고받다가 종료 3분 전 극적인 역전 골이 터진 것이다. 결승 골을 넣은 이석희 주무관은 “종료 3분을 남기고 한 골을 넣어서인지, 극적으로 이긴 것 같아 기쁘네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더 가볍겠는걸요”라며 웃는다.

승패는 중요하지 않다지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경기가 더 재미있다는 회원들이다. 재밌게 한판 승부를 벌여야 한 주간 스트레스도 훌훌 털어낼 수 있다고. 그래서 더욱 토요일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한 팀 주전은 11명이지만 참석한 멤버는 20여 명, 친선 게임이니만큼 기회는 모두에게 돌아간다. 총 회원 50여 명 중 이날은 회원의 절반 정도가 참석하였다. 20분 한 타임에 5분 휴식, 그렇게 2~3시간 시합을 하고 곧장 집으로 향한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기 위해 게임 후에도 음주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축구동호회




SOCCER





서로를 격려하는 보람된 시간

인천광역시교육청 축구동호회는 22년 역사를 자랑한다. 특히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동아리 중에서도 단연 최고참이다. 그저 축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산하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1996년 3월 1일 '축구'라는 하나의 매개로 서로 뭉친 것. 그렇게 시작된 동호회는 교육부장관기 전국시·도교육청 축구대회를 비롯한 각종 대회에 참가해 전 회원이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4개 팀이 참가하는 대회에서는 재작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우승의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성적이 좋고 나쁨을 떠나 회원 간 협심과 단결을 위해 꾸준히 참석하고 있다.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낼 수 있기에 그만큼 보람된 일이라고 전한다. 감독을 맡고 있는 김문철 주사는 친목 도모를 위한 게임이니만큼 평소에는 각자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공을 찰 수 있도록 감독 역할을 최소화하고 있다.





“대회 전에는 각자 포지션에서 최고의 컨디션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전술을 주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좋은 결과는 덤으로 따라오더라고요.”

토요일을 기다리는 사람들

동호회 활동은 업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업무가 미숙하거나 새로운 일을 맡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선배에게 노하우나 조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사를 쉽게 털어놓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동호회 역할의 한 축이다. 회원 간 단합이 어느 조직보다 더욱 단단하게 짜여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동호회 회장 김호섭 과장은 축구라는 운동은 한 개인의 화려한 플레이로 경기를 지배하는 운동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 역시 협력과 팀워크를 가장 중요시하고 있어요. 선후배 간 사랑을 바탕으로 단합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온 길이자 앞으로 나아갈 방향입니다.”

매주 토요일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회원 간 우정 때문.

“한 주라도 빠지면 왠지 모르게 허전해요. 무슨 일 있나 괜한 걱정도 되고요.”

회원 모두가 한목소리로 전한다.

평소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모임을 통해 틈틈이 건강관리도 하고 있다.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관리 그리고 우정, 모임을 통해 세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는다. 과격한 스포츠라는 생각에 자칫 다치지 않을까 주변으로부터 우려의 목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그 역시 선입견에 불과하다.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먼저 풀고,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며 시합을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게임을 하지 않으면 몸이 근질근질하고 근육이 멎쳐 한주가 더 힘들다고.

‘2018 러시아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 상당하다. 일반 국민의 관심도 이만저만 높은 게 아닌데, 축구 마니아들의 관심은 오죽하랴. 이들은 특히 토트넘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응원한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우리나라의 16강 진출 운명이 달려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지켜봅니다”라는 말을 전하며 오늘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축구에 대한 사랑과 단단한 우정 그리고 이들의 건강을 더욱더 응원하는 바이다.



김호섭 축구동호회 회장

축구는 참으로 매력적인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둥근 공 하나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끈끈하게 맺어주잖아요. 게다가 건강까지 책임지고요. 우리 동호회 회원들은 저마다 개성은 뚜렷하지만 서로에 대한 예의는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전국 대회를 비롯한 각종 시합에서 보여주는 페어플레이 정신은 참가자 모두에게 좋은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취향을 공유하는 공간 동네 작은 책방

바야흐로 동네 책방 전성시대가 열렸다. 문화, 예술, 인문학, 여행 등 다양한 분야의 책으로 채운 작은 책방들. 주인공의 마음대로, 자신만의 고유한 콘셉트로, 독특한 분위기와 개성이 가득하다. 일명 개인의 취향을 공유하는 공간이라 하겠다. 따스한 봄날, 작지만 풍성한 이야기가 가득한 곳, 골목골목 '동네 책방'으로 산책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



고요한 세계를 드립니다 고요서사

남산 아래, 굽이굽이 오르는 언덕 끝 미로 같은 골목을 지나면 이름처럼 고요한 서점이 나온다. 동네의 오래된 벽돌집 사이에 숨어 있는 아주 작은 서점은 좋은 책을 읽었을 때 느낄 수 있는 '내면의 고요'와 박인환 시인이 일제강점기 시절 운영한 서점 '마리서사'를 떠올리며 이름 지었다. 2015년, 첫 문을 연 이래 대부분 시와 소설로 가득 채웠다. 고요서사는 단순히 찾아온 이에게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다. 시·소설 낭독회, 읽고 쓰기에 관한 워크숍 등 각종 소모임이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책을 혼자 읽고, 함께 읽고, 나눠 읽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폭넓게 나눌 수 있다.

📍 주소 서울시 용산구 신촌로15길 18-4 1층

🕒 시간 오후 2시~9시

(변동 시 인스타그램에 공지)

📌 instagram @goyo_bookshop

지구를 완전 공략하는 그날까지 여행마을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독립 서점. 중세 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따끔한 명언 "세계는 한 권의 책이다. 여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책의 한 페이지만 읽는 것과 같다"로 찾는 이를 맞이하는 이곳은 '여행'에 관한 책을 모아두었다. '여행마을'의 책은 조금 특별하다. 혼자 '나선 여행'지에 다녀온 사연을 담은 여행 에세이, 여행 중 그린 그림으로 구성된 드로잉 북, 여행 사진을 엮은 사진집 등 다양한 독립 출판물은 저마다의 여행을 추억하고 나눈다. 서가 외 열쇠고리, 자석, 엽서 등 각 여행지의 유명 기념품을 모아놓은 곳 또한 여행의 설렘을 전하기에 충분하다.

📍 주소 서울시 관악구 청룡길 29 1층

🕒 시간 오후 3시~9시(일요일 휴무)

📌 instagram @traveltown_book

호작질을 응원하는 더폴락 x 소셜마켓

'당신의 호작질(손장난)을 응원합니다'를 모토로 여러 호작질로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폴락은 우리말로 '명태'라는 뜻으로 이곳에서는 다양한 독립 출판 서적과 희귀 단행본 등을 만날 수 있다. 대형 출판사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 직접 제작·출판한 책은 세상의 자잘한 이야기를 담는다. 작가와의 만남, 북 콘서트, 제작자와 책방 운영자 모임 등 다양한 행사도 기획한다. '아마도 생산적 활동'이라는 이름의 북마켓과 '폴락이다'라는 인디뮤지션의 공연은 이곳을 대표하는 호작질이다. 책 이외 다양한 물품을 볼 수 있는 소셜마켓 또한 재미가 가득하다.

📍 주소 대구시 중구 북성로 103-2

🕒 시간 낮 12시~ 오후 8시(월요일 휴무)

📌 instagram @thepollack5



출구를 찾는 당신을 기다리는 책방 카프카의 밤

부산 연산도서관 정문 앞에 위치한 소규모 복합 서점. '도서관 앞 작은 책방이라니...' 아이러니를 가득 품고 들어선 공간은 아늑하고 조용하다. 주로 소규모 독립 출판물을 다룬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밤'을 주제로 한 서적을 모아놓은 컬렉션 공간이다. 스스로 카프카의 광팬임을 자처하는 책방 주인과 책방 지기는 이곳이 책에 관한 생각과 취향을 나누고 소통하며, 책을 통해 누군가를 만나는 공간이기를 바란다. 월 1회 정기 만남을 갖는 인문 활동 독서 모임 '카프카 독담회'에는 그런 주인공의 바람이 담겨 있다.

- 📍 주소 부산시 연제구 고분로191번길 20
- 🕒 시간 낮 12시~오후 5시
(셋째·넷째 주 월요일 휴무)
- 📖 블로그 blog.naver.com/goodnight_kafka

책을 사랑하는 이들이 모이는 이듬해봄

제주 서남쪽 끄트머리 고즈넉한 작은 어촌 마을 모슬포에 위치한 동네 서점. 책방 이름만으로도 아늑함을 선사하는 '이듬해봄'은 전형적인 제주의 옛 가옥을 새 단장해 서점으로 꾸몄다. 단층의 건물, 파란 지붕, 돌담 아래 피어난 꽃들로 온전한 평화를 전하며 책을 사랑하는 이들을 불러 모은다. 낮 시간에만 잠시 문을 여는 카페 겸 책방으로 단순히 책을 사고파는 서점이라기보다 책에 이끌려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이야기와 생각을 나누는 공간이라 하겠다. 주말에는 작은 콘서트나 북 토크 등의 이벤트도 종종 진행한다.

- 📍 주소 제주 서귀포시 하모백사로29번길 6-6
- 🕒 시간 낮 12시~오후 6시(토·일요일 휴무, 변동 시 인스타그램에 공지)
- 📖 instagram @bombom_books

책방지기 추천도서

달리기를 말할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by.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가 하루키가 펴낸 첫 회고록. 마라톤 풀코스를 25회나 완주한 그에게 달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삶을 유지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 달린다는 그에게서 적절함과 절제를 배운다.



망한 여행사진집

by. 홍유진

Real 망한 필름 사진들과 B급 감성 문구가 잔해를 일컫는다. 어쩌면 지금까지 나온 적 없었던.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사진집. 그러나 저자는 폭삭망한 여행 사진에도 추억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고.





지구의 중심,
그 속에 숨은 낙원을 가다
에콰도르 - 키토와 갈라파고스제도



적도(equator)라는 단어 자체를 국명으로 사용하는 나라가 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 위치한 에콰도르(Ecuador). 우리에게
는 축구 강국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만 드넓은 태평양과 거대한 안데스산맥을 품은 곳이며, 잉카문명의 찬란한 역사를
간직한 땅이기도 하다. 자연과 생태의 보고로 잘 알려진 갈라파고스제도 역시 에콰도르가 품은 신비로움이다. 신비로
가 득한 그곳을 찾았다.



스페인 식민시대의 화려한 유산

세계적인 탐험가이자 지질학자인 독일의 알렉산더 폰 훔볼트(Alexander von Humboldt, 1769~1859)는 “에콰도르 여행은 마치 적도에서 남극까지 여행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적도 바로 아래 위치해 더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일지 모른다. 에콰도르 여행의 중심은 수도 키토(Quito)로, 중앙 안데스산맥의 설산으로 둘러싸인 키토는 해발 2850m에 자리한 덕에 연평균 기온이 14~19°C로 1년 내내 봄처럼 온화하다.

키토 구시가지는 1979년 유네스코에 의해 일찌감치 세계 10대 문화유산 도시로 지정됐다. 좁다란 골목마다 400년 전 스페인 식민 시대의 건물과 교회, 왕궁, 박물관 등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키토 구시가지 여행의 시작은 라 플라자 그랑데(La Plaza Grande). 1809년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

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서 있는 곳이다. 이곳 독립 광장에서 서쪽으로 5분 정도 걸어가면 성프란시스코 광장이 보인다. 광장에 위풍당당하게 서 있는 성프란시스코 대성당은 1536년 건립된 것으로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이기도 하다. 성프란시스코 대성당 수도원에서 가까운 라콤파니아 교회는 남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불린다. 내부는 온통 황금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천장과 제단 등 이 교회를 황금으로 칠하는 데만 무려 7톤의 금이 들어갔다고 한다.

파네시오 언덕(Corro de Panecillo)에도 올라가본다. 높이가 180m에 불과하지만 키토의 도시 전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언덕 꼭대기에는 ‘구원의 마리아상’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서 있다. 언덕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지만 강도를 만날 위험이 있으니 조심하자. 반드시 택시를 타거나 다른 여행자와 어울려 버스를 타는 것이 좋다. 정상에는 경

1. 스페인 제국 시대의 풍경을 고스란히 간직한 키토의 골목.
2. 남미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불리는 라콤파니아 교회. 내부는 온통 황금으로 장식돼 있다.
3. 세상의 중심이라 일컫는 적도탑. 노란 선을 밟는 여행자들이 가득하다.



찰이 상주하고 있어 위험하지 않다. 파네시오 언덕에서 보면 멀리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성당인 바실리카 성당(La Basílica)이 우뚝 서 있다. 키토의 랜드마크로 두 개의 첨탑이 인상적이다.

이곳이 바로 세상의 배꼽

스페인어로 ‘세상의 중심(La Mitad del Mundo)’이라는 이름을 가진 적도탑은 키토를 방문한 여행자라면 꼭 들러야 한다. 공원에 입장하면 노란 선이 그어져 있다. 이 선으로 남반구와 북반구를 구분한다. 이곳을 방문한 여행자들은 노란 선에 양발을 걸치고 인증샷을 찍기에 바쁘다. 적도선에는 ‘무제오 인티 난(Museo Inti Nan)’이라는 민속촌이 만들어져 있다. 상주하는 가이드가 재미있는 실험도 보여준다. 적도선 위에 마련된 테이블에 놓인 못 위에 달걀을 똑바로 세워볼 수 있는 것. 지구의 자전축과 적도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까닭에 노른자가 중앙에 위치한 달걀은 중심을 잡기 훨씬 쉽기 때문이다.

18세기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 회원들은 지구의 정확한 크기와 모양을 측정해 위도와 경도가 0도인 자리를 찾았다. 이곳을 적도선이라 정한 뒤 탑을 세운 것이 현재의 적도탑이다. 그러나 후대의 과학자들이 최첨단 GPS를 이용해 다시 측정하자 진짜 적도선은 따로 있었다. 진짜 적도선은 적도탑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고대 에콰도르 인디헤나스(원주민)들이 예부터 신에게 제사를 지낸 곳이었다. 수많은 과학자, 수학자의 지식보다 오랜 관찰과 경험을 통한 삶의 지혜가 더 정확했음지도 모른다.

화산이 만들어낸 고립의 세계

갈라파고스에 발을 딛기 전, 갈라파고스에 대한 이미지는 다윈의 진화론과 <종의 기원>에서 비롯된 학술적인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바다사자와 바다이구아나, 커다란 꺾집을 등에 짊어진 거북이들이 살고 있는 외딴섬. 과야킬을 이륙한 란탐 항공 비행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 희귀 동물을 카메라에 잘 담을 수 있을까 고민했다. 하지만 2시



스페인어로 ‘세상의 중심(La Mitad del Mundo)’이라는 이름을 가진 적도탑은 키토를 방문한 여행자라면 꼭 들러야 한다.

간 후 산크리스토폴발섬에 내리자마자 갈라파고스에 대한 이미지는 완전히 바뀌었다.

‘이런 낙원이 아직 지구상에 남아 있다니! 이런 비현실적인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니.’

공항에서 10여 분 동안 버스를 타고 섬의 주요 마을인 푸에르토 바케리소의 선착장에 도착하자, 이방인을 반긴 건 현지인의 따스한 미소가 아닌 ‘끄으으으’ 하는 바다사자의 울음소리였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는 터죽대감으로 보이는 커다란 바다사자 한 마리가 누워 오수를 즐기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면 “왔어?” 하는 표정을 지으며 슬쩍 눈을 뜨고는 이내 감아버렸다. 갈라파고스 터죽대감들의 시선은 무심했지만 여행자의 기슴은 어느새 빠른 속도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산크리스토폴발섬의 세로 부르호(Cerro Brujo)와 푸에르토 치노(Puerto Chino)는 절경으로 손꼽히는 곳이다. 화산 협곡 사이로 난 트레킹 코스를 따라 가며 갈라파고스의 희귀 동식물을 관찰하는 묘미란... 수풀 사이를 걷는데 가이드가 갑자기 쉿! 소리를 내더니 한쪽을 가리킨다. 푸른발부비새다. 이름 그대로 발이 푸른색을 띤다. 마치 푸른 장화를 신은 것 같은 오묘한 느낌이다. 알을 품고 있는 암컷도 있고 짝짓기를 하는 암수도 있다. 사람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

“동물들이 먼저 사람에게 다가오지 않는 한 2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먹을 것도 절대로 주어서 안 돼요. 외부에서 들여온 음식물을 잘못 먹고 동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병에 걸릴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죠.”

탐방객들이 푸른발부비새에게 가까이 가자, 가이드는 거듭 신신당부를 한다. 아마도 자연을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하려는 이런 철저한 원칙 때문에 이곳 동물들이 인간을 경계하지 않는 것인지 모른다. 산크리스토폴발섬을 빠져나와 찾은 곳은 에스파놀라섬의 폰타수아레즈. 갈라파고스 알바트로스와 바다이구아나를 관찰하기에 좋은 곳이다. 이곳에 사는 알바트로스는 몸길이가 90cm가 넘고 날개를 펼치면 그 길이가 2m에 달한다. 알바트로스는 익사한 선원의 영혼이 깃들어 있어 죽으면 재앙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불길한 징조의 새로 취급되기도 했다. 하지만 알바트로스가 유명한 진짜 이유는 그 거대한 크기와 나는 모습 때문이다. 알바트로스는 지구상에서 날 수 있는 새 중 몸집이 가장 크다. 수천 킬로미터를 날갯짓 한 번 하지 않고 날 수 있다니 놀랍기만 하다.

알바트로스가 동지를 튼 바닷가 옆 바위는 온통 바다이구아나 천지다. 바닷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바다이구아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갈라파고스에만 산다. 갈라파고스로 건너와 불모의 화산 지대에서 살아남고자 바닷속 해조류를 먹기 시작하면서 현무암 바위처럼 검은색 피부를 갖게 됐다고. 겉모습은 공포 영화에 나오는 괴물과 비슷하지만

성격은 순하다. 사람이 다가가면 눈을 깜빡이며 지그시 바라보다가 이내 등을 보이고는 사라져버린다.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고립된 섬에서 비현실적인 세계만 담아간다.

마침내 만난 낙원의 풍경

폰타수아레즈 반대편 가드너 베이는 갈라파고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 중 하나다. 갈색 펠리컨과 순진한 표정의 바다사자를 원 없이 만날 수 있는 곳이다. 해변에 도착하면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내지르고 만다. 밀가루를 뿌려놓은 듯한 순백의 모래사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다. 그리고 그 위에 떼를 지어 누워 잠자고 있는 바다사자들. 가끔 기지개를 켜기 위해 몸을 일으킬 뿐 사람이 나란히 옆에 누워 기념사진을 찍어도 신경 쓰지 않는다. 아이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장난을 걸기도 한다.

“갈라파고스에서 만난 그 어떤 생명체도 인간에게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아니, 관심이 없다는 게 맞는 표현이겠네요. 우린 혹시라도 동물을 밟지 않도록 매우 조심조심 걸어 다녀야 했죠. 바다이구아나들은 마치 무엇 때문에 이곳까지 와서 자신을 바라보는지 묻는 것 같았어요.” 시애틀에서 온 엘렌은 갈라파고스의 동물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갈라파고스의 동물들은 사람을 믿는다. 경계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자신들을 해친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동물들은 사람을 손님 정도로만 인식한다. 갈라파고스를 찾은 여행자들은 처음에는 이 사실에 당황하다가 나중에는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어울려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갈라파고스 여행의 마지막 날, 가드너 베이를 탐방하고 돌아와 샤워를 하고 뱃머리의 선베드에 누웠다. 수평선 너머 손을 대면 데일 것만 같은 붉은 노을을 바라본다. 해 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시간은 조용히 지나간다. 어쩌면 나이를 먹는 건 두렵지 않지만, 이런 곳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건 슬픈 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이때다. 갈라파고스의 해가 저문다.

1. 푸에르토 치노의 화산 협곡 사이로 난 트레킹 코스를 따라가면 갈라파고스의 희귀 동식물들을 관찰할 수 있다.
2. 가드너 베이 모래사장서 만난 바다사자 가족.
3. 갈라파고스의 또 다른 주인은 펠리컨이다.
4. 산크리스토폴발의 세로 콜로라도 거북이 공원에서 만난 육지거북.



여행 정보



우리나라에서 에콰도르까지 가는 직항편은 없다.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휴스턴, 뉴욕을 경유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의 경우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에콰도르는 2002년부터 미국 화폐인 달러화를 사용하고 있다. 시차는 우리나라보다 14시간 늦다. 여행 적기는 6~9월로 시원하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여행하기 가장 좋다. 에콰도르 여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한 에콰도르상무관실 (02-738-0079, seoul@proecuador.gob.ec)을 통해 알아보자. 갈라파고스 크루즈 여행은 일정에 따라 행선지와 요금이 다양하다. 메트로폴리탄 투어링(metropolitan-touring.com)에서 다양한 크루즈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일정과 예산에 맞춰 적당한 상품을 선택하자.



2



3



4

천재 시인 이상의 유일한 흔적
 ‘이상의 집’에서
 그의 숨결을 느끼다



이상의 집은 이상이 백부의 양자로 들어간 후 23세까지 20년 가까이 살았던 집터 중 일 부다. 이상과 관련한 기록이 남아 있는 유일한 장소로 특수법인 문화유산신탁이 매입, 2013년에 개방한 무료 문학 공간이다. 이상의 작품 세계를 계승하고자 그를 추억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오감도> <날개> 등을 이곳에서 집필했다 하니, 그만큼 이상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하고 소중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상(李箱)의 흔적을 찾아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곳. '이상의 집'은 1910~1920년대 우리나라 가옥의 모습으로 개·보수를 거치지 않고 축대만 덧대어 보존하고 있다. 바닥에는 갈겨 쓴 한자가 그대로 있고, 벽에는 당시 벽지가 붙어 있다. 건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

이상은 '유리'라는 사물을 특별히 여겼다. 특히 '거울'이라는 시를 보면, 유리로 만든 거울은 그에게 각별한 소재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집'으로 들어서는 문과 외부의 벽이 거울로 된 이유도 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았기 때문이다. 전면 유리로 된 문을 열어 '이상의 집' 안으로 들어서면 지나가는 시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의 소설 <날개> 속 내가 바깥을 갈망하던 모습이 잠시 투영된다. '이상의 집' 앞 길바닥에는 한글 자음이 규칙 없이 나열돼 있는데, 그의 시 '오감도'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 13인의 아해가 골목을 달리는 모습이 떠오른다. 안과 밖, 실로 이상의 작품이다.

그의 날개에 꿈과 자유를 담아

전면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안내 부스와 10명 남짓한 사람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놓여 있다. 그 뒤로 커다란 철문이 자리하는데, 철문을 밀면 '이상의 방'이라는 공간이 나타난다. 실제로 이상이 살았던 방은 아니지만, 현대적으로 그의 작품 세계를 표현해 꾸몄다. 철문을 밀어 시인의 마음 안으로 들어간다. 사방이 차단돼 있어, 어둡고 차갑다. 백부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그가 살았던 방도 굉장히 좁고 어두웠다고 하니, 조금이나마 이상의 심정을 나누는 시간이다. 그 위로 굉장히 좁은 통로의 계단을 오르면 작은 발코니를 만나는데, '이상의 집'의 작은 마당을 비롯해 저 멀리 인왕산까지 보인다. <날개>의 "날자, 날자, 날아보자"라는 구절이 떠오른다. 사후에는 그가 날개를 펴고 활짝 날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세상을 향해 뚫어놓았다고. 이상은 자신의 꿈을 못다 피우고 세상을 떴지만, 그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에 감사한 공간이다.



이상의 집

📍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7길 18(통인동)

☎ 070-8837-8374



The-K와 함께 떠나는, 4월 문화가 있는 날



사랑과 우정
그리고 정의를 위해 뭉쳤다

<삼총사>

뮤지컬 <삼총사>가 개막 10주년을 맞아 돌아왔다. 배우 유준상, 엄기준, 신성우, 민영기, 김법래와 연출가 왕용범 등 2009년 초연 멤버가 다시 뭉친 것. 뮤지컬 <삼총사>는 알렉상드르 뒤마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본래 체코 뮤지컬이지만 극본을 새로 쓴 만큼 재창작에 가까워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삼총사>의 백미인 검술 장면은 액러배틱과 결합해 현란하고 화려한 액션을 선보인다.

- 🕒 **일시** ~ 5월 27일(일)
- 📍 **장소** 한진아트센터
- 💰 **관람료** VIP석 13만원 /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5만원
- 🎵 **프로그램** 17세기 프랑스 왕실 총사를 꿈꾸는 청년 달타냥과 전설적인 총사 아토스, 프로토스, 아리미스가 루이 13세를 둘러싼 음모를 밝혀내는 이야기
- ☎ **문의** 1577-3363

故 정강자 작가의 타계 이후
첫 번째 회고전

<정강자: 마지막 여행은 달에 가고 싶다>

아라리오갤러리가 준비한 전시 <정강자: 마지막 여행은 달에 가고 싶다>는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이 있었으나, 지난해 7월 작가가 지병으로 갑작스럽게 별세하면서, 작가가 타계한 이후 최초로 열린 회고전이자 유작전이 되었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 스스로 느낀 고독과 애환을 작업에 녹여낸 이야기를 담았다. 초창기 작품과 사회적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그의 끈질긴 예술혼이 투영된 작품 60여 점을 소개한다. 작가의 일생을 정리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삶과 예술의 의미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를 가져도 좋겠다.

- 🕒 **일시** ~ 5월 6일(일)
- 📍 **장소** 아라리오갤러리 천안관
- 💰 **관람료** 3000원
- ☎ **문의** 041-551-5100



EXHIBITION

MUSICAL



지젤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그녀

유니버설발레단 〈지젤〉

지젤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와 더불어 세계 3대 클래식 발레로 불리는 고전 중의 고전이다. 특히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사랑이야기는 낭만 발레의 걸작으로 꼽기에 손색없다. 특히 유니버설발레단의 <지젤>은 1985년 한국에서 초연한 러시아 마린스키 발레단 버전으로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이번 무대는 장 코라이, 질 페로의 안무로 원작 고유의 매력을 더해 유니버설발레단만의 우아하면서도 아기자기한 지젤을 만날 수 있다.

- 📅 **일시** 4월 6일(금)~15일(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오후 3시·7시 /
일요일 오후 3시
- 📍 **장소** 유니버설아트센터
- 💰 **관람료** R석 10만원 / S석 8만원 /
A석 6만원 / B석 3만원 / C석 1만원
- 🎵 **프로그램** 죽음을 뛰어넘는 애뜻하고
승고한 사랑 이야기
- ☎ **문의** 070-7124-1737

찬미의 대상,
곡선의 미학을 담다

<내재된 곡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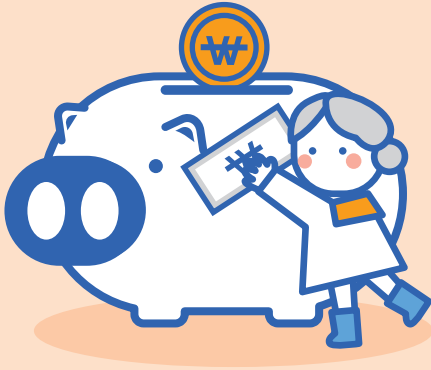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은 다양한 기획 전시를 통해 '부드럽고 유려한 곡선'으로 휴식과 정서의 순화, 예술적 희열 그리고 명상의 기회를 선사한다. 그중 무수한 점으로 이루어진 선(線)과 아름다움의 백미를 이루는 곡선에 대한 작품을 엄선해 다시 선보인다. 신(神)이 만든 가장 아름다운 선이자 시공간을 초월해 예술가들에게 찬미의 대상이 되어온 '곡선'의 미학이 돋보이는 전시로 예술적 가치를 재조명한다.

- 📅 **일시** ~5월 6일(일)
- 📍 **장소**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 💰 **관람료** 성인 2000원 / 중·고등, 군인 1000원 /
초등학생 500원
- ☎ **문의** 055-340-7000



EXHIBITION

PERFORMING



전 세계 억만장자의 30%를 차지하는 유대인의 성공에는 부모의 경제 교육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한다. 금융·경제교육으로 자녀들을 빌 게이츠, 워런 버핏, 마크 저커버그 처럼 키우라는 것이 아니다. 금융·경제교육은 꿈을 이루고 노후에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삶의 지혜 그 자체다.

금융·경제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

우리나라 금융·경제교육의 현 실태

2015년 신용 평가사 스탠더앤드푸어스와 세계적인 여론 조사 기관 갤럽 등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 세계 금융 지식 조사'에서 노르웨이가 1위를 차지했다. 노르웨이는 응답자의 71%가 금융 지식에 관한 해당 질문에 정확히 답변할 정도로 금융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한국인의 금융 지식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뒤쳐져 있다. 한국은 148개국 중 77위에 그쳐 말리, 알제리 등과 비슷한 순위였다. 이는 한국이 IT를 비롯한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서는 선진국 수준이지만 금융에서만은 후진국임을 보여준다. 세계경제포럼에서조차 한국의 금융 산업과 시장을 가나, 우간다, 부탄보다 낮은 87위로 평가했다. 2018년 180개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자유지수 27위와 너무나도 비교된다.

자녀들에게 경제와 금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도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앞서 소개한 수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 성인들의 금융 지식과 이해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낮다 보니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금융과 경제 교육을 하기 어렵다. 그러니 가정에서의 금융 지도 시간도 매우 부족하다. 더구나 학교에서조차 금융 관련 내용은 사회나 실과 교과에만 적은 비중으로 다루는 만큼 대학에서 경제나 경영을 전공하지 않는 이상 자녀들이 접할 수 있는 금융·경제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바람직한 금융·경제교육의 단계별 이해와 적용

자녀의 나이에 맞는 경제 교육 방법을 하나둘 적용하다 보면 우리 아이의 금융 의식 수준 향상뿐 아니라 국가 금융 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경제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먼저 **취학 전 자녀**에 대한 적용 방법이다. 하루라도 빨리 경제 마인드를 갖춰 나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니 좋은 일을 하거나 칭찬받을 때마다 칭찬 스티커를 붙여준다. 스티커가 쌓이면 용돈을 주자. 돈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노력의 대가임을 깨닫게 해주는 데 주안점을 두면 된다. 적은 돈을 한 푼 두 푼 모으면 더 좋은 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돈의 가치에 대한 배움과 동기 유발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습관화하는 것만도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초등학생** 시기다. 저학년 때는 아이 이름으로 된 통장을 개설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용돈을 아껴 근검,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 매번 은행에 가서 저금을 하기에는 시간적 어려움이 많으니, 간이 저금통에 수시로 용돈을 모은 후 한 달이나 두 달 주기로 집 근처 은행에 가서 예치한다. 금융기관과 친숙해지는 것은 물론 목돈 마련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다.

여기에 돈의 가치에 대한 동기 유발이 취학 전과 자연스럽게 연계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매주 받는 1000원을 소비하면 사탕의 가치에 그치지만, 한 달을 모으면 자장면을 먹을 수 있고, 3개월을 모으면 피자과 치킨을 살 수 있다는 인식 등을 할 수 있다.

고학년 때는 어린이 경제 신문을 정기 구독하는 게 좋다. 경제 신문을 주기적으로 보면 금융·경제의 흐름을 익힐 수 있는데, 중요하거나 어려운 내용은 부모님과 함께 토의하며 자세히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효과가 배가한다. 신문 활용 교육(NIE)과 병행하면 논술 실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중학생은 초등학교 때보다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다. 용돈 기입장을 꾸준히 작성하게 하면 선택과 기회 비용, 절제와 인내, 계획적인 소비 습관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한국은행에 개설된 '청소년 경제나라'에 가입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이버 금융 활동을 통한 경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경제 투자 가이드, 화폐 이야기 등 경제 생활 도우미 프로그램과 빙고, 퀴즈 같은 경제 지식 게임 및 모의 투자, 물가 체험, 경제 라이프 시뮬레이션 등 흥미 위주의 다양한 코너로 구성되어 있어 자녀가 경제와 금융을 좀 더 체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도와준다.

고등학생 시기에는 금융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금융 시스템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한국거래소,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는 사전에 신청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금융 및 경제 활동을 경험하게 한다. 특히 한국거래소에서는 매주 청소년들을 위한 '참여형 증권교실'을 운영하며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에서도 '파이낸셜 빌리지'와 '투자 타임머신'을 통해 생생한 금융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경제교육 통해 자립심 키워야

사실 금융·경제교육의 성과는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그렇지만 마시멜로 실험 결과를 보고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금융·경제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과 방법은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해 현재의 만족을 지연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시멜로 실험은 큰 방에 있는 4세 유아 600명에게 마시멜로를 나눠주며 지금 먹어도 되지만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하나를 더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200명의 아이는 바로 먹었지만 나머지 아이는 하나를 더 얻기 위해 먹지 않았다고 한다. 15년 후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한 결과 인내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대부분 적극적이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했다. 특히 미국 대학입학 자격시험(SAT) 결과 인내하지 않은 아이들은 500점대의 점수를 얻었지만, 더 나은 보상을 위해 만족을 지연한 아이들은 700점에 가까운 높은 점수를 달성했다.

결론적으로 과거와 같이 자녀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으로 이어지던 시절은 사라지고 있다. 더 이상 자녀가 부모를 책임져주는 시대가 아니다. 자칫하다가는 성인인 된 자녀를 한평생 책임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제는 입시 위주의 국·영·수 교육에서 탈피해 금융·경제 마인드를 통해 4차 산업이라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바로 헤쳐나갈 능력과 자립심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닌 물고기 잡는 방법을 일깨워주는 것이 이상적인 교육인 것처럼 자녀들에게 물질적 유산보다는 스스로 부를 형성하여 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물려주는 것이 오늘날 부모들의 책임이라고 본다.

최지만 경기 부천 석천초 교사

개인 투자가로 KBS <아침마당>, MBC <경제매거진>, EBS <부모광장> 등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으며, 2015-2016년 <한국교육신문>에 경제칼럼을 기고하였다. 국무총리·교육부장관 경기도지사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으로서 반세기 가까이 교직원 복지의 외길을 걸어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2018년 3월 16일 창립 47주년을 맞이했다. 특히 올하는 여의도 신축 공제회관 'The-K 타워' 개관과 함께 대대적인 조직 개편, The-K way 확립 등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원년으로 만들고자 노력 중이다.

‘함께한 50년, 함께할 100년’ 2018년, 새로운 도약의 원년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립 47주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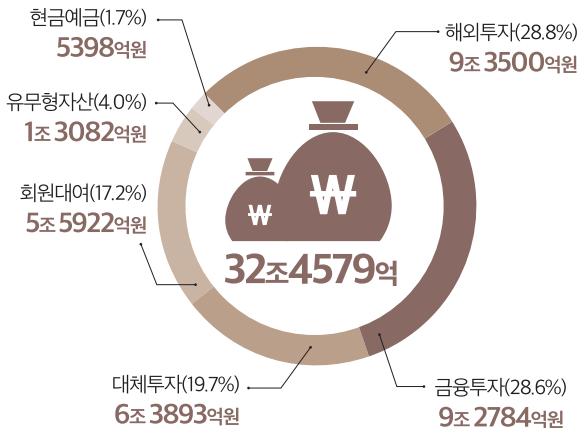
2017년 기금운용수익 1조 7567억원, 자산 32조원 돌파
1971년 출범 당시 자산 13억원과 회원 7만명에 불과했던 교직원공제회는 47년 동안 자산 32조원과 회원 77만명, 여기에 호텔·손해보험·상조·실버타운·골프장·저축은행 등 8개 산하사업체를 보유한 국내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3월 7일 열린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해 기금운용수익으로 역대 최고인 1조 7567억원을 거양했다. 2017년 투자자산 운용 규모는 25조 177억원이었으며, 운용수익률 또한 7.7%로 2013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다. 글로벌 경기 회복에 힘입은 증시 상승세 속에 금융투자 부문의 고수익·안정적 배당수익을 가져오는 대체투자의 지속적인 확대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로써 총자산은 전년 대비 11.1% 상승한 32조

4579억원을 기록했다. 교직원공제회는 회원 수 79만명, 자산 35조원을 2018년 목표로 설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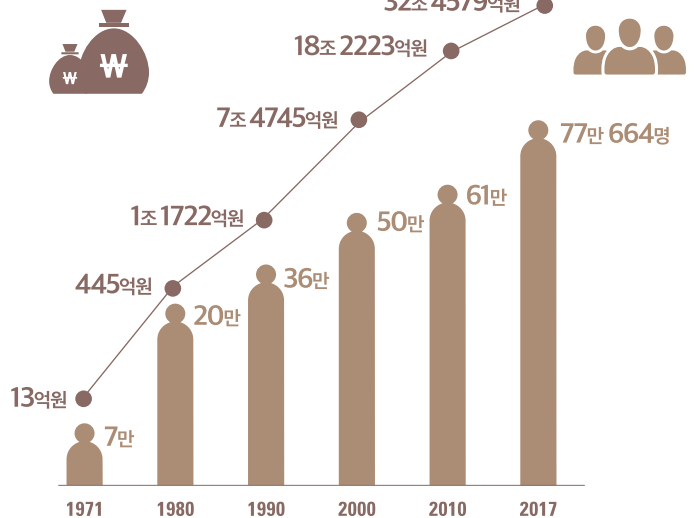
회원 위한 다양한 혜택, 문화·생활 복지 서비스 확대
회원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해 공제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회원 복지 혜택도 매년 지속해서 확대되는 가운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2017년의 경우 ▲공연·강연·전시·영화 등 문화 복지 서비스 참여 13만 1천여 명(동반인 포함 27만여 명) ▲회원 가입 축하·결혼 기념품, 출산 축하금, 고구좌 회원 축하금 등 복지부조 지급 8만 5471건 ▲숙박·의료·장례·레저 등 생활 복지 서비스 이용 39만 5440건의 실적을 보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2.4%, 1.5%, 5.7% 증가한 수치다.
공제회원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16년 4월 출시된

2017년도 자산 구성



자산 변동 추이



회원 수 추이



The-K복지누리대여의 이용 규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연이율 2.99%(변동)의 저금리로 최초·결혼·출산 시 신청 가능한 복지형 대여 제도로써 지난해 3870억원(올 2월 기준 누적 6779억원)의 대여 실적을 보이며, 이는 전체 대여 금액 중 6.6%를 차지한다. 공제회는 올해 회원 복지 관련 예산을 작년보다 31.3%가량 증액하는 가운데 회원 참여를 더욱 증대시키고, 구체적인 니즈를 반영한 생활 복지 제휴 서비스를 확충해 회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힘쓸 예정이다.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조직 개편 단행 및 The-K way 확립
교직원공제회는 올해 신축 회관 입주를 계기로 '제2창립'에 버금가는 혁신을 단행, 2021년의 창립 50주년을 넘어 미래 100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3월 19일자로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해 종전보다 1실 2팀 늘어난 3실 10부 35팀으로 개편이 이뤄졌다. 대표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기금운용총괄이사(CIO) 직속으로 기존의 투자전략팀을 기금운용전략실로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기존 투자 지역별(국내·해외)로 구성됐던 기금운용부문을 투자자산군별(주식·채권, PEF·VC, 부동산·인프라)로 재편해

노하우 및 시장 트렌드 공유 등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공제회의 전략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전략기획실은 신규 사업을 발굴, 정착시킨 후 현업 부서로 이관하는 '인큐베이팅' 기능을 강화한다. 경영지원부문에서는 IT기획팀 및 법무지원팀을 신설해 부문별 기능을 강화하고, 회원사업부문에서는 보험 사업의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한 보험 분리회계를 도입한다. 한편, 공제회 경영의 중심이 되는 공통 목표와 가치를 담은 The-K way를 확립해 조직운영 전반에 반영하고, 임직원 내재화를 통해 조직문화로 정착시켜 지속 성장의 기반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The-K way는 크게 미션, 비전, 핵심 가치, 행동 원칙, 일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공제회 임직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일하는 방식 혁신 10대 과제 및 계층별 행동 원칙 등을 선정했다.

문용린 이사장은 "창립 47주년을 맞아 새로운 50년을 대비해야 하는 현시점에서 조직개편 등을 통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전환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회원들에게 더욱 신뢰받고, 행복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 국내 최고의 금융·복지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혁



- 71.03.16 대한교원공제회 창립총회
- 71.06.01 장기저축급여제도 시행
- 78.09.02 본부 회관 이전(서울 수하동→여의도)
- 87.04.01 퇴직생활급여제도 시행
- 90.04.20 자산 1조원 돌파
- 95.09.01 종합복지급여제도(보험) 시행
- 04.01.20 대한교원공제회→한국교직원공제회 사명 변경
- 11.07.18 산하사업체 브랜드 네임 'The-K'로 통합
- 12.12.11 CCM(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첫 획득
- 15.03.01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시행
- 15.08.21 보험 브랜드 '교직원라이프(교직Life)' 선포
- 16.03.24 제20대 문용린 이사장 취임
- 16.04.01 The-K복지누리대여 시행
- 17.09.01 제4회 한국 기금·자산운용대상 공제회부문 최우수상
- 17.12.01 제22회 소비자의 날 대통령 표창
- 17.12.04 2017 한국의 경영대상 지속가능경영부문 대상

여의도 새 공제회관 ‘The-K 타워’ 개관 공제회,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지난 3월 22일 신축 공제회관 The-K 타워의 개관식을 가졌다. 1978년 종로 수하동에서 여의도로 이전한 지 40년 만의 일이다. 2021년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새 동지를 둔 공제회는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새 패러다임에 맞춘 새로운 금융·복지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두껍아, 두껍아, 헌 집 줄게. 새집 다오.” 노래를 부르며 모래 무덤을 두드린다. 행여 무너지기라도 할까 조심스레 손을 뻗다. “내 집이 더 크네” “네 집이 더 작네” 하며 아웅다웅하던 이 놀이를 콘크리트와 우레탄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이 할까. 적어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겪은 세대라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울려 퍼진 이 전래 동요를 모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모래로라도 집을 지을 만큼 집이란 우리네 삶에서 단순한 물리적 공간에 그치지 않는다. 사람이 태어나 가족이 만들어지는 곳,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곳, 수많은 경험이 축적되고 추억이 쌓이는 곳... 환산된 물질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따지는 오늘날에는 그 의미가 많이 퇴색했지만, 여전히 집이란 부(富)를 넘어선 기억과 정서에 농밀하게 연결된 소중한 공간이다. 그러기에 새집을 맞이하는 건 여러모로 특별한 일이다. 오죽하면 제주에서는 임무 교대를 위해 하늘로 잠시 올라간 신(神)들의 눈을 피해 ‘신구간’

동안 이사를 한다고 하니, 새집의 의미란 특별함을 넘어 각별할 수도 있겠다. 1978년 여의도로 옮겨온 이래 40년 만에 새로 지은 집으로 이사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 또한 특별한 기분이다.

1971년 창립한 공제회의 첫 등지는 서울 종각 인근 수하동의 6층짜리 재래식 건물이었다. 낡고 협소했을 뿐 아니라 당시 공제회 자산의 대부분이 유가증권에 투자되고 있었기에 리스크 분산과 안정적인 수익원을 목적으로 새 공제회관 건립을 추진했다. 후보지는 당시 한창 개발 열풍이 일던 여의도와 영동지구(강남). 결국 국회를 비롯한 다수의 공공기관, 언론사 등이 들어설 것으로 조사된 여

1. The-K타워 전경
2. The-K 스퀘어와 꿈나무 조각상
3. 수하동 회관 전경
4. 여의도 구 회관 전경





의도를 선택했다.

이후 1976년 10월 기공식을 갖고 1년 10개월 만인 1978년 8월 지하 2층, 지상 13층, 연면적 약 2만 581m²(6226평)의 새 공제회관을 완공했다. 토지 매입과 건설비 등으로 모두 30억여 원이 소요됐는데, 건립을 처음 추진한 1975년 공제회 자산이 90억여 원임을 감안하면 총자산의 3분의 1을 투입한 '대역사가 아닐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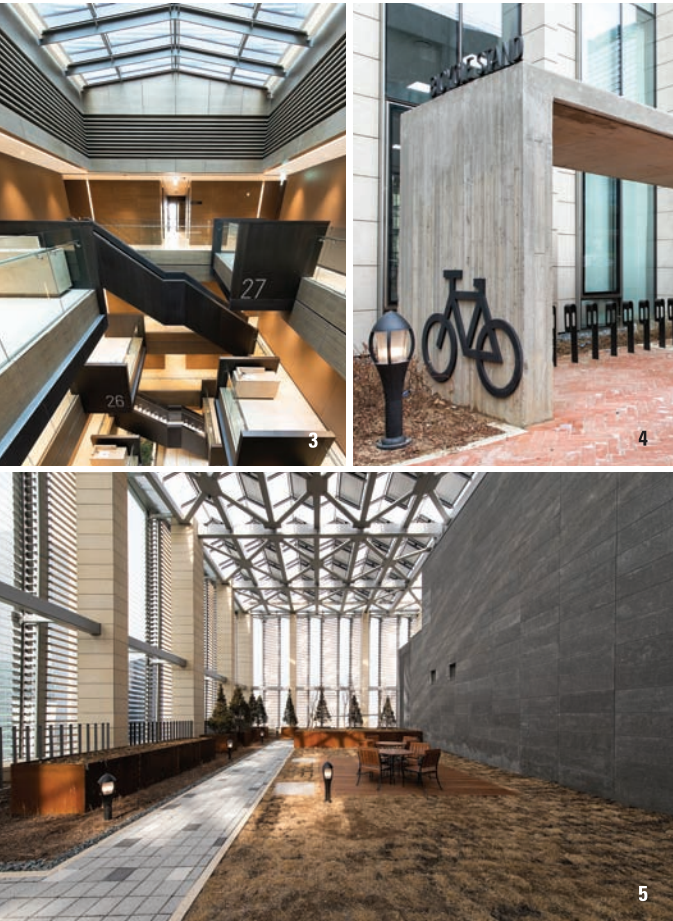
그리고 40년 만인 지난 3월 22일 지하 5층, 지상 27층, 연면적 약 8만 3333m²(2만 5208평)로 4배

더 커진 새 공제회관 'The-K 타워'의 개관식이 열렸다. 2015년 3월 착공 후 2년 11개월 만에 정식으로 문을 연 것이다. 공제회가 신축 회관을 계획한 것은 기존 회관이 노후화해 수선·유지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산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이 교차하는 여의도역에 인접하는 등 입지 조건이 뛰어난에도 용적률이 법정 최대치인 960%에 크게 못 미치는 276%에 그치는 실정이었다. 또 내부 편의시설 및 방문 회원 등을 위한 주차·편의 공간 부족 등이 함께 지적되기도 했다.

The-K 타워는 공제회가 지닌 공익적·윤리적 경영 이념을 바탕으로 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모티브로 설계됐다. 최첨단 인텔리전트·친환경 빌딩에 걸맞은 다수의 공공 인증을 받았다. 특히 여의도가 지닌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해 건물 정면과 측면의 공개 공지를 활용한 열린 광장 'The-K 스퀘어'를 조성, 여의도와 공제회를 찾는 사람들에게 도심 속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큰 특징이다. 공제회는 23~27층을 사무실로 사용한다. 내방 회원을 위한 고객센터는 로비가 있는 1층에 배치해

1. 대회의실
2. 대공연장
3. 24~27층 아트리움
4. 자전거 거치대
5. 옥상 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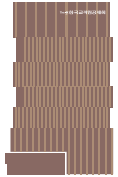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상담 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The-K 타워의 업무 및 상업 시설은 이미 100% 임대 완료된 상태다. 공제회 사업운영부 관계자는 “인근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향후 파크원 완공, 우정사업본부 사옥 재건축 등으로 대규모 오피스 공급이 예정돼 있어 여의도 임대 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3~22층을 KB증권과 계열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장기 임대해 향후 시장 변화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또 “공제회의 The-K 타워 사용 면적이 전체의 약 20%를 차지함에도 비용 대비 수익률이 부동산 평균 투자수익률을 크게 상회하는 7~9%로 전망돼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한다”라고 덧붙였다.

모래바람이 부는 허허벌판에 보유 자산의 3분의 1이나 투자한 빌딩을 지어 수익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한창 중동 건설 붐이 일던 시절이라 숙련된 건축·설비 기술자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막상 입주하니 여의도로 연결되는 버스 노선이 없어 관광버스를 계약 입차해 출퇴근하고, 그마저도 행락철이면 뒷돈을 받고 아무 연락 없이 오지 않아 원성이 자자했던...

그렇게 시작한 황량한 여의도에서의 삶. 1978년 9월 2일 입주 이래 정확히 1만 4444일 만인 2018년 3월 19일 새집에 들기까지 공제회 회원 수는 18만명에서 77만명으로, 자산은 248억원에서 무려 32조원으로 늘어났다. 창립 50주년을 목전에 두고 맞이한 The-K 타워의 개관은 단순히 이제는 이런 건물 심수 채를 거리낌 없이 세울 만큼 외형적으로 성장했다는 거만함이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축적된 임직원의 경험과 회원의 성원을 바탕으로 이곳을 향후 50년간 펼쳐질 새 패러다임에 맞춰 새로운 꿈과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줄 미래지향적 공간으로 만들어나가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든다. 두꺼비에게 새집에 대한 소망을 담아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처럼, 77만 공제회원의 소망과 염원을 담아.



The-K 타워 개요

착공/준공
2015년 3월/2018년 2월

규모
지하 5층/지상 27층

대지/건축/연면적
6,476㎡/2,999㎡/83,333㎡
(2만 5208평)

건폐율/용적률
46.3%/899.8%

설계/공사
간삼건축/한신공영의

사용 계획
• 지하 1~2층
대공연장·근린생활시설

• 1층
공제회 고객지원센터/
농협·KB국민은행

• 3~22층
KB증권 및 계열사

• 23~27층
한국교직원공제회

특징
LEED·친환경 건축물·
초고속 정보통신·지능형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 LEED(Leader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1998년 미국에서 도입된 친환경 인증 제도로 디자인, 설계, 시공, 운영 중에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축물에만 부여. 국내 주요 인증 건축물로는 코엑스 컨벤션 센터, 서울스퀘어 등이 있다.

남도에 찾아온 완연한 봄 봄꽃 축제로 물들다

4월,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꽃이 만발하는 시기로 봄의 정취에 마음이 졸곤 설렌다. 따뜻한 봄날엔 어디로든 떠나고 싶은 사명감이 생긴다. 봄나들이가 한창인 남도를 찾았다.

T
h
e
|
K
지
리
산
가
족
호
텔

뜨거운 축제의 고장, 남도의 봄을 찾아서

전남의 축제에 전국이 들썩인다. 2018 문화관광 축제 85개 가운데 전남에서 9개의 축제가 선정되었기 때문. 이로써 전남은 강원과 함께 전국 최다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문화관광축제 4년 연속 최다 선정 지역으로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축제의 고장이 된 것이다.

특히 남도의 봄은 다양한 꽃으로 여행객을 맞이한다.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간 지리산 자락과 그 부근에는 봄소식을 알리는 꽃이 만발하곤 한다. 광양의 매화로 시작해 구례의 산수유, 하동의 벚꽃, 여수의 진달래, 남원의 철쭉, 곡성의 장미까지. 흐드러지게 핀 남도의 꽃향기에 취해 시간 가는 줄 모를 것이다.

The-K지리산가족호텔

- 📍 전남 구례군 산동면 지리산온천로 317
- ☎ 061-783-8100
- 🌐 thek-hotel.co.kr

봄꽃 나들이는 The-K지리산가족호텔과 함께

봄나들이 축제의 고장에 한발 먼저 가보자. The-K지리산가족호텔은 전남 구례에 위치해 남

도의 봄꽃 축제를 즐기기에 딱 맞는 장소다. 남도 뿐 아니라 구례와 가까운 경남 하동의 벚꽃 축제, 전북 남원의 철쭉 축제까지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는 최상의 거리에 위치해 있다.

또한 지리산온천관광단지(지리산온천)를 비롯해 주변 유명한 관광 명소에서 휴식을 즐길 수도 있다. 축제를 즐기고 난 뒤 피로를 풀 수 있는 온천 시설도 The-K 지리산가족호텔의 매력이다. 지리산 온천수는 게르마늄과 탄산나트륨이 다량 함유된 유향천으로 아토피와 신경통에 좋다고 알려져 있다.

더불어 다양한 콘도형 객실은 최신 시설과 편안한 분위기로 즐거운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 아울러 봄꽃이 만연한 지리산의 비경을 객실 안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남도의 봄 축제를 즐기려는 공제회원에게는 The-K지리산가족호텔이 숙소로 제격이다.

4월의 완벽한 봄날, 가족과 함께하는 봄나들이를 계획 중이라면 남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The-K지리산가족호텔과 즐기는 남도의 봄 축제



JEONBUK

남원 비래봉 철쭉제
4월 20일(금)~5월 20일(일)

구례 지리산 남악제
4월 18일(수)~20일(금)

담양 대나무축제
5월 2일(수)~7일(월)

곡성 세계장미축제
5월 18(금)~27(일)

The-K
지리산가족호텔

JEONNAM

하동 화개장터벚꽃축제
4월 7일(토)~8일(일)

GYEONGNAM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
3월 30일(금)~4월 1일(일)





하동
Hadong

하동 화개장터벚꽃축제

전라도와 경상도를 잇는 벚꽃길. 하얀 눈처럼 피어난 벚꽃은 삼진청류와 화개동천 25km 구간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수많은 청춘 남녀가 두 손을 꼭 잡고 벚꽃길을 걷는데, 이 길을 남녀가 두 손 꼭 잡고 걸으면 백년해로한다고 하여 '흔레길'이라고도 부른다.

- 📅 4월 7일(토)~8일(일)
- 📍 경남 하동군 화개면 ☎ 1588-3186



남원
Namwon

남원 바래봉 철쭉제

이곳에 철쭉이 군락을 이룬 데는 이유가 있다. 1970년대 지리산 바래봉 일대에 양을 방목한 결과, 양들이 독성이 있는 철쭉만 남기고 모두 먹은 것. 그래서 '양떼가 가꾼 정원'이라고도 부른다. 철쭉은 다른 봄꽃에 비해 오래 피어 있다. 등산로를 걸으며 분홍 향연을 즐겨보자.

- 📅 4월 20일(금)~5월 20일(일)
- 📍 전북 남원시 운봉읍 바래봉 ☎ 063-634-0024



여수
Yeosoo

여수 영취산 진달래축제

여수에 봄이 오면 좋은 게 하나 더 늘어난다. 바로 붉게 물드는 영취산의 진달래가 그것이다. 영취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게 진달래 군락을 이룬다. 진달래의 꽃말은 사랑의 기쁨. 온 산이 붉게 물들어 보는 이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것을 보면 진달래의 꽃말은 참말인가 보다.

- 📅 3월 30일(금)~4월 1일(일)
- 📍 전남 여수시 삼암동 영취산 ☎ 061-659-3877



담양
Damyang

담양대나무축제

맑은 하늘로 쪽 뺨은 대나무로 숲이 우거진다. 담양 대나무 축제는 대나무로 맑은 공기를 내고, 정갈한 음식을 만들고, 환경을 지키는 담양을 이야기한다. 밤이 되면 조명 덕분에 별천지가 펼쳐진다. 시원한 대나무 아이스크림으로 마무리하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축제가 아닐까.

- 📅 5월 2일(수)~7일(월)
- 📍 전남 담양군 죽녹원, 관방제림 일원 ☎ 061-380-3151



구례
Gurae

구례 지리산 남악제

남악제는 지리산의 명칭 '남악(南岳)'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신라시대부터 지내온 지리산 산신제에 기원을 둔 제례 축제다. 제례를 비롯해 공연·전시·체험·경연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가 이어진다. 더불어 4월 초순까지 지리산을 채운 노란빛의 산수유꽃을 볼 수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겠다.

- 📅 4월 18일(수)~20일(금)
- 📍 전남 구례군 마산면 화암사 ☎ 061-780-2727



곡성
Goksung

곡성 세계장미축제

폐차한 기차와 메밀 꽃밭만 넓게 자리에 있던 수천만 송이의 세계 장미가 들어섰다. 전라선 기차길이 축제의 운치를 더한다. 옛 곡성역은 장미공원으로 들어서는 입구로 변신해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으로 붐빈다. '장미는 빨간 장미'라는 고정관념을 깨듯 형형색색의 장미가 여행객을 맞이한다.

- 📅 5월 18(금)~27(일)
- 📍 전남 곡성군 섬진강 기차마을 ☎ 061-360-82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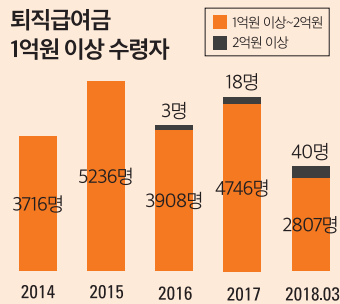
2월 말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6139억원 지급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월 말로 정년·명예 등 퇴직하는 회원 7925명에게 총 6139억여 원의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을 지급한다.

◆**2억원 이상 수령자 40명**=이번 퇴직 회원 중 퇴직급여금을 가장 많이 수령하는 회원은 2억 2091만여 원을 받는다. 1980년 장기저축급여를 가입한 뒤 38년 1개월 동안 9617만여 원의 원금을 납입하고 원금의 1.3배인 1억 2474만여 원을 이자로 지급받는 것이다. 이 같은 퇴직급여금 고액 수령자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2006년 1억원 이상 수령자가 최초 탄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최초로 2억원 이상 수령하는 회원이 등장했다. 이번에는 1억원 이상 수령자 2807명, 2억원 이상 수령자가 40명이나 된다.

◆**연배율 적용돼 장기 가입자에게 유리**=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의 고액 수령자가 늘어나는 것은 오래 가입할수록 목돈 마련에 유리한 장기저축급여의 특성 때문이다. 장기저축급여는 1구좌당 600원씩 최저 3만원(50구좌)에서 최고 60만원(1000구좌)까지 가입할 수 있는 적립식 저축상품이다. 연배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자가 크게 늘어난다. 납입할 수 있는 최대 구좌수가 늘어난 것도 원인이다. 장기저축급여 가입 최대 구좌수는 1971년 교직원공제회 설립 당시엔 5구좌에 불과했으나, 월 납입 상한액을 높여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게 해달라는 회원들의 꾸준한 요청으로 2015년 1000구좌까지 늘어났다.

◆**퇴직 회원 42.8% 분할급여금 가입**=2월 말 퇴직 청구한 회원 7925명 중 42.8%인 3392명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으로 전환, 가입했다.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은 퇴직급여금을 일정 기간 동안 연금처럼 나눠 수령할 수 있는 노후보장형 금융상품이다. 분할급여금은 퇴직 시점에 1인당 1회 가입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금 내에서 최저 500만원부터 10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창립 47주년 기념식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창립 47주년을 맞아 3월 15일 서울 여의도의 새 공제회관 'The-K 타워'에서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가졌다. 문용린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기념사를 통해 "1971년 창립 당시 회원 수 7만명, 자산 13억원으로 출발한 공제회가 2018년 3월 현재 회원 수 77만명, 자산 32조원의 기업으로 우뚝 섰다"며 "공제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임직원의 노력과 회원의 끊임없는 성원 덕분"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기념식을 40년 만에 새롭게 지은 The-K 타워에서 갖는 것은 '제2의 창사'라는 뜻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며 "입주와 함께 단행한 대대적인 조직개편, The-K way 확립 등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공제회가 100년 기업을 향해 나아가길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공제회 모범 직원 40여 명이 표창을 받았다. 이 외 우수제안 포상, CS 우수직원 포상, 장기근속 포상 등이 수여됐다.



스승의 날 기념 '오페라 갈라 공연' 5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스승의 날 기념 회원 초청행사 '그랜드 오페라 갈라 공연'을 5월 13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전관 행사로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세종문화회관 개관 40주년 기념 공연으로 서울시합창단, 서울시유스오케스트라 등 서울시예술단과 소프라노 서선영, 테너 박지웅 등이 출연해 유명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인다. 또한 이날 레드카펫 세리머니, 스승의 날 퍼포먼스, 기념품 증정 등의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회원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응모하면 된다.

- ▶ 일시: 5월 13일 오후 4시
- ▶ 장소: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 초청 인원: 공제회원 1000명 (동반인 포함 3000명)
- ▶ 참가비: 1만원(동반인 포함)
- ▶ 응모: 4월 3일~16일
- ▶ 문의: 1577-3400

특별회원 대상 'The-K 은빛동행' 전주·군산시 투어 ... 12일까지 응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The-K 은빛동행-전주·군산시 투어'에 특별회원을 초청한다. 이번 행사는 따스한 봄날 가족·친구(동반 1인)와 함께 기차와 버스를 타고 한국 전통문화를 간직한 전주와 근대 역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군산을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응모는 공제회 특별회원(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또는 퇴직생활급여 가입회원)만 가능하며, 4월 12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 콜센터, 지부에서 신청하면 된다. 행사는 4~5월 중 두 차례 개최 예정이다.



**The-K서드에이지
‘프라임요양병원’ 개원**

The-K서드에이지의 노인 전문 요양 시설 ‘너스홈’이 ‘프라임요양병원’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다. 지난 3월에 개원한 프라임요양병원은 ‘환자의 자아존중을 기본으로 하는 병원’을 목표로 운영된다. 내과, 정신건강의학과, 일반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한의과의 9개 진료 과목을 개설해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남 창녕에 위치한 The-K서드에이지는 호텔급 고품격 시설과 다양한 서비스, 합리적인 비용으로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은 실버타운으로 호평받고 있다.

☎ 전화 055-530-8211



‘나이 많아도 OK’... The-K손해보험 간편심사건강보험 출시

The-K손해보험은 나이 또는 만성질환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웠던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무배당 간편가입플러스 건강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최근 3개월 내 의사의 입원, 수술, 추가검사 필요 소견 ▶2년 내 입원, 수술 ▶5년 내 암 진단, 입원 또는 수술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나이가 많거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 가능하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발병하기 쉬운 3대 중증질환(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비·입원비·수술비까지 보장한다. 뇌출혈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뇌졸중 진단비 담보도 신설했다. 이 밖에도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비나 7대 질병(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호흡기질환) 수술비, 응급실 내원 진료비까지 선택 특약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은 40세부터 최대 75세까지 가능하다.

학교 방문 차량무상점검 신청

한편 The-K손해보험은 교직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교직원 차량무상점검 서비스를 올해도 시행한다. 차량무상점검을 신청하면 정비 업체가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엔진오일, 타이어 등 20여 가지 항목을 무상으로 점검해준다. 서비스 신청은 에듀카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학교당 차량 10대 이상이면 가능하다.

☎ 전화 1566-8551 / 02-6670-8058(차량무상점검)

▶지역별 서비스 일정

	4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서울·경기	○	○	○	○	○	○
부산	○	○	○	○		
대구	○	○	○			
대전					○	○
울산					○	
제주				○	○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제외

**The-K호텔경주,
체리 블로섬 패키지 판매**

The-K호텔경주는 공제회원을 위한 ‘체리 블로섬 패키지(Cherry Blossom Package)’를 4월 30일까지 판매한다.



▶객실(스탠다드 룸) 1박, 조식 2인 11만 5000원~17만원이다. 모든 가격은 공제회원가이며, 한실 이용 시 5000원, 준특실 이용 시 2만원이 추가된다.

한편 The-K호텔경주는 봄맞이 계절 메뉴도 선보인다. 3월 5일부터 한식당은 봄향기정식, 봄향기비빔밥 등을, 커피숍 ‘아이스’는 생딸기조각케이크, 생딸기요거트셰이크, 생딸기주스 등을 판매한다.

☎ 전화 054-745-8100



**The-K호텔서울,
공제회원 위한 특별한 웨딩 혜택**

The-K호텔서울 웨딩홀은 공제회원을 대상으로 푸짐한 혜택을 선보인다. 주중·일요일·공휴일에 결혼식을 올리는 고객에게 식사 15%, 플라워 데커레이션 40% 할인혜택을 주며 토요일 예식은 식사 10%, 플라워 데커레이션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무료 프러포즈 이벤트 서비스(예약 인원 500명 이상), 상견례 식사, 결혼식 당일 가족 화보 촬영 및 호텔 허니문 객실 등의 특전도 제공한다.

☎ 전화 02-526-9400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어린이 동반 패키지 출시**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은 자녀와 함께 가족 여행을 하는 고객을 위한 ‘마이 리틀 다이어리’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패키지는 키즈 스위트 객실 1박, 조식 뷔페(성인 2인, 소인 1인), 어린이용 풀장이 있는 스포츠센터 3인 이용권으로 구성됐다. 오션룩 티 입욕제, 객실용 어린이 슬리퍼와 목욕가운도 제공한다. 패키지 가격은 23만원이며, 자녀 1명 추가 이용 시 2만원이 할증된다.

☎ 전화 064-729-8100

The-K Magazine Event

우리가 쏘닭!

친구 데려와 치킨은 우리가 쏘게

오직 '기승전닭'인 당신을 위해 <The-K 매거진>이 쏘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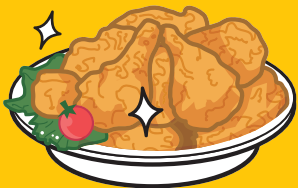
이벤트 기간 4월 1일~30일



팀명 한번
쌘박하게 지어봐~

200팀
(400명)

BHC 반반치킨+
콜라 1.25L
(모바일 기프티콘)



참여 방법

- 1 친구 많이도 필요없다. 단 1명만 있음 된다.
- 2 함께 <The-K 매거진> 앱을 간다.
- 3 처음 앱을 실행하면 보이는 이벤트 응모 버튼을 클릭한다.
- 4 친구와 만든 팀명과 상품 받을 이름, 연락처를 입력한다.
(응모는 각자, 팀명은 동일하게)
- 5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응모 완료 버튼 클릭!
- 6 밤마다 달에 소원을 빌며 기다린다. 당첨을!

당첨 발표

5월 중순 발송 예정

<The-K 매거진>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앱



아이폰 앱



4월 즉석당첨이벤트

이벤트 기간 4월 1일~30일

즉석당첨이벤트에 중독된 지도 어언 7개월째.
한 번도 당첨 된 적 없지만
오늘도 난 앱을 클릭한다.

오늘은 될 거야. 당첨이!
저 화면 속 기프티콘이
내 휴대폰으로
들어오는 순간이 올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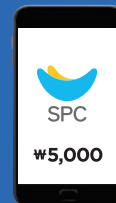
500매

GS편의점 5천원권
(모바일)



500매

SPC 모바일 상품권
5천원권 (모바일)



참여 방법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www.thekmagazine.co.kr에 접속, '4월 즉석 당첨 이벤트'를 클릭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품 정보를 확인합니다... 성별과 연령을 체크합니다... 당첨 여부를 확인합니다... 당첨된 분에 한해 인적 사항을 기입합니다.

* 모든 독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기재 또는 미가입 시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기프티콘은 5월 중순 발송 예정입니다.

함께한 50년, 함께할 100년 교육가족의 행복파트너-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난 50년,
교육가족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함께 해 온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앞으로 다가 올 100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앞으로도 교직원들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신축회관
'The-K Tower'